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4월 12일)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5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K선명상 개발…정신문명 선도하겠다"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일상회복 후 대규모 법석
윤석열 대통령 등 참석해
세대 대표 불자들이 헌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 전경.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일상회복 후 4년 만에 이뤄진 법석으로 예전 활기를 되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기흥 리더스포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당선인으로 조계사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에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봉축 법어를 통해 자비심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면목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논밭을 일궈 중생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반야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로 바꾸게 했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비(大悲)의 한 생각이 세상을 변화 시키고 인생을 바꾼다"고 설했다.

취임 후 처음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발표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을 세계 명상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5차 정신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종단은 미래의 5차 산업혁명의 마음 명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 K명상을 수출해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돼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도 국민 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정진"이라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 모시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움이요 나아가 인간의 참된 성품을 회복해 국민 행복, 세계 평화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가는 새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옴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다.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정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따스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세대 통합을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불자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어르신 대표로는 홍순의 · 홍순분 · 이영림 불자가, 중년을 대표해 윤상희 · 김경숙 불자가, 청년세대 대표로는 차수진 · 윤두현 불자가, 청소년 대표로 송인웅 · 차유진 불자가, 어린이 대표로 서보원 · 김성경 불자가 헌화했다.

이와 함께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7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자비신행회,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종 배우, 홍성흔 前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봉은사 봉축법요식에서 아기부처님 관불의식을 하는 회주 자승 스님.

봉은사 사부대중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감로수 같은 비가 대지를 적신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선종본찰 봉은사에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자는 사부대중의 다짐과 원력이 가득 찼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7일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과 주지 원명 스님, 최진식 신도회장, 태영호 · 박진 · 유경준 지역구 국회의원, 홍익표 · 배현진 국회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봉은사 법요식의 핵심은 '부처님 법 전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2~3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마치며 '성불하세요' 대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인사를 대신하자는 자승 스님의 당부를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이날 역시 "부처님이 룸비니에 태어나시며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는 뜻으로 차별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이라며 "부처님이 성도 이후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법 전하라'는 다짐이자 원력, 구호를 외치며 봉축법어를 짧게 마무리했다.

주지 원명 스님도 상월결사 정신의 실천이 곧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오신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전법의 등불을 밝힐 때 소외된 곳에도 광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법요식에서 박혜영 전 신도회 사무총장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동국대 이상민 학생에겐 서산사명장학금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여야 당대표들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야 대표들도 SNS계정에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의 불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밝힌 아름다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날이 되길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자타불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국민이 화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 한 부처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어루만지는 동력이 됐다"면서 "국민의 삶이 위기인 지금, 정치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부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며 "우리 공동체와 정치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삶 한복판에서 부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기를,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돌아보는 하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다음 주 휴간합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마애불 바로 세워 미래천년 열자”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봉축기도

5월 24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성원 스님 “사부대중 힘 모으자”
사부대중 간절한 마음 담긴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주 남산에 석가모니불 정근기도가 울려 퍼졌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는 5월 24일 오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봉축기도’를 봉행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이날 봉축기도는 육법공양, 관불의식, 인사말, 발원문,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신도회 다도반의 육법공양에 이어 천일기도 정준 중인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의 관불의식이 이어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봉축인사에서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성원 스님은 “우리가 마애부처님 전에 천일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혜와 자비로 나와 세상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하기 위해서”라며 “열암곡 마애부처님 천일기도가 원만히 회향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 중생들도 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이들이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깨달음의 세상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긴 발원문을 낭독했다. 천호덕 대구 불광사 신도회장는 동참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됐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고 발원했다. 천호덕 신도회장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이며 과거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천년을 여는 것이고 통일신라의 꿈과 비원을 실현하는 거룩한 불사”라면서 “오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불제자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5월 24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봉축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기도에는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포교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미숙 경북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년의 침묵이 천년의 감로법문으로 이어지도록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원력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종단에서 부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니 희열이 솟아진다”면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천년의 침묵을 깨고 현현하시는 부처님 자비광명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일이자 불자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은 “마애부처님이 세워지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기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불자대상’ 허재, 포교원 홍보대사 위촉

5월 23일, 조계종 신도 등록 홍보 나서기로

불자 농구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 씨가 조계종 신도 등록과 모바일 신도증 홍보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허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신도 등록을 홍보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앞서 배우 남일우 · 김용림 · 남상진 씨를 시작으로 개그맨 이수근, 산악인 엄홍길, 야구선수 이대호,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가 이름을 올렸다. 허재 씨는 지난 2020년 불자대상을 수상한 인연으로 포교원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은 허 씨는 “홍보대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 홍보대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가 더 널리 알려지도록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범해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종단이 지금까지 신도 등록에 소홀했다. 앞으로 불교 저변 확대와 신도 등록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대형불화 6점 정밀조사 결과 ‘한눈에’

조계종 · 문화재청, ‘2022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발간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등
국보 보물 괘불 자료 수록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등 국보, 보물 대형불화를 정밀조사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이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2년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복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매년 대형불화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채색 정보, 관련 유물의 원형 자료와 보존현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이 8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 조사한 괘불도는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국보)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보물)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보물) 등 6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의 문양 및 장신구 등에서 금박과 함께 많은 은박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간 일부 괘불도에서 은박이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의 경우 특히 사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아 부족한 금박을 대신하는 보완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의 가장자리에 불화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불어넣는 복장(腹藏)의 의미로 기록된 범자(梵字)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범자는 현존하는 괘불도 중에서 가장 이른 예로, 이를 판독해 확인한 진언(眞言)과 도판을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 같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비지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보존관리에도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는 △포항 보경사 괘불탱(보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보물) △천은사 괘불탱(보물)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선암사 석가모니불 괘불탱(보물) △남양주 흥국사 괘불도 등 6건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괘불도의 고화질 사진 등 원형정보는 문화유산 지식e음(portal.nrich.go.kr)의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정전 70년 한마당

6월 8일 서울 조계사 마당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가 6월 8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평화기원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평화기원문화제는 평화의 울림, 평화의 몸짓, 평화의 노래로 공연이 구성되어 있다. 평화의 울림에는 〈야단법석〉(대표 홍인호)의 타악공연과 고금 스님의 법고 울림이 준비되어 있다. 평화의 몸짓으로는 〈풍물놀이연구소〉 김현주 님의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도살풀이’ 공연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함께 하는 통일노래 율동 배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추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평화활동을 통해 불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평화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70년 동안 거듭되고 있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우리 모두 내일은 축구왕! 삭발 염의한 동자승과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숲속반 원아가 축구로 한판 승부를 펼쳤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24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제1회 조계사 천진불배 어린이 축구대회 내일은 축구왕’을 개최했다. 동자승과 원아들을 각각 5명으로 나눠 A팀과 B팀으로 편성한 뒤 10분 동안 승부를 가르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자승 A팀과 숲속반 B팀이 맞붙은 최종 결승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자승 A팀이 우승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경기에 참여한 동자승과 선재어린이집 원아 모두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칭찬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도난 불교 성보 32점 제자리로

조계종 · 문화재청, 5월 23일 환수 고불식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0년 은닉사범에 32점 압수
총 14개 사찰 도난 성보 확인
재판서 징역형, 압수물 몰수해
진우 스님 "신앙적 가치 회복"
피해 사찰들 기금 2억 원 쾌척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5월 23일 환수고불식 이후 환수된 성보들을 라운딩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문화재 32점이 제자리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환수된 성보문화재 중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1988년 도난당한 '구례 천은사 제석천상과 나한상'은 조선 후기의 조각장인 색난(色難) 등 여러 화원이 제작한 귀중한 불상들이다. 1999년 도난당한 불화인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는 18세기 후반 불화의 전형적인 설채법과 세련된 필치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32점의 성보 환수는 2020년 1월경 경매사에 불화를 출품해 처분하려다 범행이 발각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은닉해 온 불상과 불화 등 총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찾아내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발견 당시 일부 불상은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파손된 것도 있었으며, 일부 불화는 임의로 덧칠이 되어 있는 등 원형이 훼손된 것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입수문화재 몰수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문화재 원 소장처 환부결정에 따라 조계종에 환부됐다.

당시 문화재청의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은닉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32점 전부에 대해 진위감정을 실시했고, 조계종 소속의 전국 14개 사찰들에서 서로 다른 시기들에 도난당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했다. 수사과정에도 적극 협력하여 이들 문화유산들이 원래 있던 사찰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고불식은 제자리를 찾게 된 불교문화유산 32점의 환수를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난되고 유출됐던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환수돼 이제 원래의 자리인 사찰에 봉안된다. 오늘의 성과는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그동안 상호 협력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종단을 대표해 관계 기관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보의 환지본처는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일 뿐만 아니라 예경의 대상으로 봉안된 성보의 신앙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도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이 성보들은 도난의 역사를 넘어 본래의 자리에서 불성의 상징이자 존귀한 예경의 대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청은 2014년 조계종 및 경찰청 등과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맺고, 꾸준한 협력을 통해 도난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환수를 위한 개선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도난 문화유산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사찰들을 대표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문 스님은 "오늘의 결과물은 종단의 책임 있는 종무행정과 피해 사찰협의회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판결, 환부 결정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종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 감복할 따름"이라며 "특히 이 일을 주관하신 문화부장 스님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종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문화재청과 경찰청, 사법기관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사찰들은 이제 돌아온 성보를 예경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모실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조계종은 환수된 보경사 영산회상도, 유가사 영산회괘불 등 보물급 문화재들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훼손 문화재는 조속히 적절한 보존처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고불식에서 성보문화재 환수에 크게 기여한 이재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 정진희 문화재감정위원, 최은령 문화재감정위원, 강상우 경찰청 경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고불식에 앞서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대진)는 성보환수 기금 2억 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누리꾼 힘으로 '도난 탱화' 환수

경매 출품된 전주 정혜사 산신탱
별다른 도움 없이 SNS로만 모금
15만 조회수 기록…타종교인 동참

예경의 대상인 탱화와 불상 같은 성보문화재들은 도난당한 후 본래의 사찰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도난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덧칠하거나 봉안처가 기록된 화기(畫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꾼들의 힘으로 소중한 성보가 다시 불교계로 돌아왔다. 지난 5월 13일,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정혜사는 약 30여 년 전 도난당한 산신탱을 다시 되찾았다.

정혜사 산신탱은 근대기인 1926년에 조성된 탱화로 당시 사찰의 중창불사과정에서 제작됐다. 정혜사 측은 "당시 호남에서 제일 뛰어난 금어(金魚)셨던 금용 일섭 스님과 제자들이 정혜사에 상주하며 불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도난당한 산신탱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진행된 모 고미술 경매에 산신탱이 출품된 것이다. 당시 산신탱을 발견한 원타 스님(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재학)은 "불교미술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평소 미술시장에 유출되는 불교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었는대 보기 드물게 화기가 온전히 남은 산신탱이 출품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이후 원타 스님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박영빈 씨(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수료)와 화기를 판독, 전주 정혜사에서 일섭 스님의 점안으로 봉안된 탱화란 것을 밝혀냈다. 이후 정혜사 측에 연락해 탱화가 파불돼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도난품인지를 확인했다. 박영빈 씨는 "확인 당시 사찰 측에서 도난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경매에 나온 것을 알고 회수도 시도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마음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후 원타 스님과 박영빈 씨는 탱화환수를 발원, 각자 SNS를 통해 환수를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트위터에 올려진 환수모금 글은 조회수 15만회 이상, 리트윗 500회 이상으로 확산됐다. 모금에는 초등학생부터 타종교인까지 1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한 참여자는 "종교를 떠나, 소중한 유물이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뜻깊은 일"이라며 참여의의를 전했다.


누리꾼의 힘으로 환수한 도난 탱화인 전주 정혜사 산신탱. 불교미술 전공한 스님과 불교학을 전공한 도반이 도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경매입찰을 도왔던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사찰에서 환수할 정도로 가치가 높은 탱화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다"며 경쟁이 붙은 이유를 추정했다. 모금액을 웃돌았으나 다행히 낙찰에 성공, 이후 이루어진 추가 모금을 통해 모든 비용은 물론, 탱화의 재표구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도 모금에 성공했다. 불교문화재가 불교계의 도움이나 홍보 없이 SNS를 통한 누리꾼 개인들의 모금으로 환수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다. 도난당한 후 오랫동안 입은 그림의 상처와 훼손은 2달여의 기간을 거쳐 문화재복원 전문가의 손으로 되살아났다. 수리를 마친 산신탱은 5월 13일 오후, 정혜사로 인계됐다.

탱화를 다시 친견한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은 "너무나 기쁘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탱화를 환수한 감동을 전했다. 정혜사 측은 환수한 산신탱을 보광전에 봉안하고 5월 20일 새롭게 점안, 대중에게 탱화를 공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광동학원 중 · 고교생 불자 거듭나다

5월 24일, 봉선사서 이사장 초격 스님 전계사로 수계 법회



광동중 · 고교와 의정부광동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오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초격)은 5월 24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광동학원 수계대법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에는 광동학원 산하 광동중 · 고교와 의정부광동고교 3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648명이 동참했다. 3개 학교가 연합해 봉선사에서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 그동안 각 학교별로 수계법회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이어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아 연합법회가 마련됐다.

전계사로서 법좌에 오른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계를 받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라 할 수 없다. 제자라면 마땅히 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면서 "수계는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키우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 향하는 길"이라고 수계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수계자들은 함께 그간의 업을 참회하고 손목에 연비를 받으며 수계 공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광동중 원효서(16) 양은 "불교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학생들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초격 스님은 법회에서 3개 학교 3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전화 02-720-1786 |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출시되었습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 승소(僧笑)

본연의 순한 맛을 담은
사찰식 왕교자 Korean temple mandu



몸에 좋은 6가지 채소가 듬뿍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
스님의 레시피를 온전히 담아내다

‘詩禪一如’ 선풍 내보인 ‘慈悲攝化’ 화신

〈시선일여〉 〈자비섭화〉

설악 무산 대종사를 그리며

2018년 5월 26일, 설악이 산주(山主)를 잃었다. 설악산문을 복원해 전법당간을 세우고 한국 선시의 현대화에 앞장섰던 설악 무산 대종사가 원적에 들어서다. 대종사는 격외의 증도가를 대중에게 내보인 선사이자 선취가 담긴 시조로 한국 문단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무산 대종사 열반 5주기를 맞아 후학 문인인 유응오 소설가가 본지에 추모의 글을 보내왔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밀양 성천사로 동진출가, 인월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했으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호당 성준 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뒷날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 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무문관 역해〉〈백유경 禪解—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 을 어찌 알랴〉〈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 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시집으로 〈심우도〉〈절간이야기〉〈아득한 성자〉〈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는 휘(諱)인 무산(霧山)이나 법호인 설악(雪嶽)보다 속명인 오현(五絃)으로 더 많이 불렸다. 대종사께서는 세간(世間) 너머 출세간(出世間), 출세간 너머 출출세간(出出世間)의 길을 걸으며 성속일여(聖俗一如)의 삶을 살다가셨다.

대종사는 1932년 경남 밀양시 상남면 이현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대종사는 성격이 온아하고 영특한 법기(法器)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도반인 정휴 대종사가 쓴 비명(碑銘)에 따르면 “스님은 밀양 성천사 인월(印月) 화상을 은사로 모시고 동진 출가한 뒤 장교(藏敎)를 읽고 두타정진(頭陀精進)하여 대지(大智)를 터득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대종사는 끊임없이 만행의 길을 떠났다. 당시는 6 · 25 전쟁 직후여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종사도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다가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보여서 대문을 밀고 들어가 1시간 동안 독경을 했다. 하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대종사는 오기가 생겨서 더욱 목청을 높여 독경을 이어나갔다. 때마침 얼굴이 일그러진 문둥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오래지 않아서 주인이 쌀을 들고 나타났다. 그런데 주인이 주는 쌀의 양이 달랐다. 문둥이에게는 한 됫박이나 주면서 대종사에게는 간장 종지만큼 줬던 것이다. 그 순간 대종사는 깨달았다.

‘문둥이가 삼계도사이자 법왕의 제자인 나보다 낫구나.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보다도 문둥이를 무서워하는구나.’

집을 나온 대종사는 무작정 문둥이의 뒤를 따라갔다. 문둥이가 도착한 곳은 다리 밑의 움막이었다. 문둥이 아내가 남편을 반겼다. 낯선 스님을 보자 문둥이 아내는 경계의 눈빛을 건네더니 잠시 뒤 스스럼없이 대종사에게 움막의 자리를 내주었다. 대종사는 그해 겨울 문둥이 부부의 움막에서 지냈다. 이듬해 봄 문둥이 부부는 편지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스님은 다시 절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성불하십시오.”

스님은 편지를 들고서 문둥이 부부를 찾아다니다가 이런 발심을 하게 되었다.

‘문둥이 부부처럼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도 6년 수도 끝에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지 않았는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불조(佛祖)가 부촉(咐囑)한 심인(心印)을 얻기 위해 스님은 삼랑진 금무산으로 들어가 토굴을 짓고 불철주야 정신한 끝에 생사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신지기(轉身之機)를 이루었다. 이 무렵 대종사는 평생 도반인 정휴 대종사를 만났다. 정휴 대종사의 소개로 영허당(暎虛堂) 녹원(綠園) 대종사와 법연을 맺고 김천 계림사, 구미 해운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당시 스님은 정완영 시인이 운영하는 양지다방에서 이호우, 이영도, 김상옥, 박재삼 시인과 교류하기도 했다.

1975년 봄 설악산에서 정호당(晶浩堂) 성준(聲準) 화상을 친견하고 초종월격(超宗越格)의 법거량으로 입실건당한 뒤 용성(龍城), 고암(古庵), 성준(聲準)으로 면면히 계승돼온 법맥을 이었다.

법계출가 정신 담은 시편 통해
한국 선시 현대화 · 발전 앞장
신흥사 · 백담사 등에 선원 개원
‘설악산문’ 복원…전법당간 세워
“불교, 깨달음 실천 종교” 강조

성준 화상이 물은 것은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는 화두였고, 스님이 성준 화상에게 내놓은 대답이 ‘달마십면목’이라는 시편이다. 이 시편은 1975년 〈현대시학〉에 발표됐다.

매일 쓰다듬어도 수염은 자라지 않고
하늘은 너무 맑아 염색을 하고 있네
한 소식 달빛을 잡은 손발톱은 다 물러 빠지고
– 무산 대종사 ‘달마 5’

이후 무산 대종사는 신흥사 주지로 취임해 만나는 사람마다 근기에 맞게 자애를 보여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이르게 하였다.

수미산처럼 높고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대종사의 공적 중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무산 대종사는 백담사에 무문관인 무금선원과 조계종 기본선원을, 신흥사에 향성선원을, 흥천사에 삼각선원을 개원했을 뿐만 아니라 4년간 백담사 무문관에서 직접 폐관 정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납자들의 수행처를 마련함으로써 종지종풍을 드날렸음은 물론이고 돈오뇌성(頓悟雷聲)의 선지(禪旨)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종사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하고 만해축전을 개최해 전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켰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유심〉을 복간해 불교문학의 당간을 세웠다. 무산 대종사는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선행은 안 보이게 하고, 행동은 은밀하게 하라. 어리석고 둔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라’라는 중국 동산 스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도 대종사가 남긴 시편들은 일언일구(一言一句)도 버릴 데가 없는 선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대종사가 양양 낙산사에서 정진 끝에 법신(法身)이 삼라만상 가운데 현현(顯現)하고 있음을 깨닫고 읊은 게송은 아래와 같다.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 홀로 듣노라면
천경만론(千經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 무산 대종사 오도송 ‘파도’

스님은 ‘심우도(尋牛圖)’, ‘아득한 성자’ 등 심원하고도 수려한 주옥같은 시편들을 남겼다. 이는 스님이 법계출가를 이룬 참된 수행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드넓은 마음을 지녔기에 스님은 곧잘 〈육조단경〉의 한 구절인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을 역설하였다.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삶과 죽음 등 모든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설 때야 비로소 법계 출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산 대종사가 베푼 자비섭화(慈悲攝化)는 출세간을 가리지 않았던 터라 그 덕화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스님에게서 지척의 자로는 잴 수 없는 대방무외(大方無外)한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종사는 여러 시편에 자신을 한낱 미물에 비유했다.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 무산 대종사 ‘적멸을 위하여’

무산 대종사의 안목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인 찰나가 가장 긴 시간인 영겁으로, 가장 낮은 존재인 미물이 가장 높은 존재인 성자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는 “중생의 삶이 바로 팔면대장경이고 부처고 선지식”이라고 일갈하면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선지식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본래면목’이나 ‘뜰 앞의 잣나무’ 같은 화두는 천년 전 중국 선사들의 산중문답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는 중생과 고통을 같이 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대종사는 입적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았다. 폐가가 된 고향집에서 대종사는 한 바탕 울고 웃은 뒤 주석처로 돌아와 시자를 불러 아래와 같은 임종게를 남겼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았구나
억!

스님이 남긴 마지막 문장 부호는 마침표도 아니고 쉼표도 아니고 말줄임표도 아닌 느낌표였다. 평생을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살다간 도반의 열반에 정휴 대종사는 아래와 같이 찬하였다.

한번 할(喝)을 하니 대천세계(大千世界)가 무너지고
한번 발길질에 비로(毘盧)의 바다가 뒤집혔다
손끝으로 우주(宇宙)를 자유롭게 부리고
입으로 백억화신(百億化身)을 토하니
이것이 무산(霧山)의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선풍(禪風)이로다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산주(山主)를 잃은 설악산은 슬픔에 잠겨 있다. 자욱한 운무(雲霧)에 휩싸인 설악산은 살아생전 대종사의 진영(眞影)일 것이다. 지평선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천야만야(千耶萬耶)한 준령(峻嶺)의 정상(頂上)인가 싶다가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기 자욱한 소산(燒山)의 영대(靈臺)인 게 스님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이었으니….

대종사의 두 눈은 때로는 탁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당최 알 수 없었고, 때로는 원체 맑고 투명해서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맑든 탁하든 스님의 두 눈에 깃든 여울목은 참으로 깊어서 그 수심(水深)을 감히 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물도 없는 강물 흘러가게 해 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 범람하게 해 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뗏목다리
– 무산 대종사 ‘무자화 6’



유응오 소설가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생명나눔은 나와 자녀 위하는 불사”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3.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21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축제에 참가,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부스를 지키며 시민들을 만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생명나눔, 5월 21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홍보

단주 만들기 등 불교체험부스엔 시민 400여 명 참여로 큰 호응

일면 스님 시민 직접 만나 홍보 경험담 공유하며 감동 전하기도

세상을 밝히고 마음과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형형색색 연등이 장엄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들과 자원봉사들은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본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쪽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이 진행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등회 취지에 맞춰 비즈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상담자에게는 텀블러와 손 선풍기, 가방 등 다양한 선물이 증정됐고, 체험공간에는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생명나눔 홍보위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홍보팻말을 들고 우정국로를 돌며 장기기증 희망드록과 환자 지원사업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거리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부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을 펼치며 희망등록을 유도했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단 자원봉사 10명도 거리 순회 캠페인뿐 아니라 체험공간에서 연꽃 만들기 도우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희망의 씨앗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기장 희망등록을 외치는 봉사자들의 열정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희망등록에는 어르신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장기와 안구, 조직 등을 고루 희망등록한 정석자 어르신(65)은 “각종 행사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여러 차례 접했지만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았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커지던 차에 오늘 희망등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명나눔 홍보위원들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본부의 사업을 소개하며 희망등록을 유도했다.



부스 한쪽에서는 단주와 연등 만들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아들, 딸과 함께 설명을 듣던 황진명 씨(42)도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다가 기분 좋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만큼, 추후를 대비해 몸을 더욱 소중히 다루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모습을 보고 희망등록에 나선 시민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친구와 함께 연등회를 즐기러 나왔다가 희망등록했다는 윤지선 씨(29)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면서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보다는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후부터는 이사장 일면 스님도 홍보에 동참, 시민들을 만났다.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1982년 간경화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운 투병생활을 한 일면 스님은 삶의 자락을 놓기 직전인 2000년 1월, 적합한 기증자를 만나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후 스님은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은덕을 갚겠다’ 는 서원을 세우고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취임,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다. 덕분에 취임 당시 2000여 명이었던 회원은 현재 15만여 명에 달한다.

이날 일면 스님은 시민들에게 “뇌사 시 장기기증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일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나눔이 사회에 실현될 때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깃들어 이 땅에 불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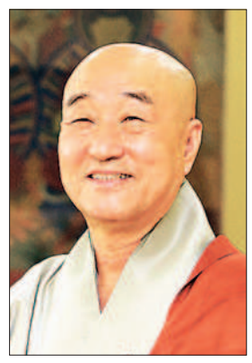
이날 캠페인에서 거리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을 권선해 시민들의 동참을 받아내는 데 일조한 이재필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원(컴퓨터공학과2)은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을 부각시키는 홍보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을 총괄한 김대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를 봉행한다.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와 바라춤, 나비 춤 시연도 펼쳐진다. 02)734-8050

이사장 일면 대종사 봉축 메시지

행복을 추구하는 등불 밝히자



두산 일면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불암사 회주

녹음이 짙어져 가는 산 아래 맑은 목탁 음이 울려 퍼지고, 색색의 연등이 아름다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밝히고 자유와 평화가 깃든 부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흥겹게 봉축합시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다가올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 모습이 참다운 불자의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눔과 이타행은 이웃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의무이고, 이웃이 고통받을 때 내가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하시고, 밝혀진 연등 하나하나가 불자님들 가정에 행복과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불보살전에 기원드립니다.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의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 · 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시 2023년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나비춤 시연
접수안내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 암 사 (031)527-8345
현장접수 | 불암사
접 수 비 | 영가 한 분당 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53-17-001346 (입금 후 전화바랍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일 면 / 후원회장 정명선화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신도회장 전보현자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

율하신도시 지역 포교 책임질 수행 도량 '우뚝'

5월 21일 '율하선원 500불 점안법회' 봉행
안국선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불사 마무리
"간화선 · 포교 다짐, 김해 수행도량으로"
500불 무형문화재 입사장 이경자 작품
4층 2개 동 연면적 1919.3㎡ 규모 조성
선원 정식 개원식은 올 하반기에 열 예정


김해 율하선원이 5월 21일 경내 법당에서 500불 입사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다양한 정보와 실참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부산 안국선원이 경남 김해시 율하신도시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김해지역 포교에 나선다.

율하선원(주지 석산)은 5월 21일 경내 법당에서 '율하선원 500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지역포교를 시작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점안 의식 후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주지 석산 스님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이날 점안을 마친 율하선원 500불은 이경자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의 작품이다. 금속 바탕에 무수한 두드림과 금선, 은선으로 문양을 새겨 넣은 전통공예 기법 '입사(入絲)'로 조성됐으며, 부처님 몸에는 꽃, 해, 달, 바람 등 삼라만상의 문양을 새겼다. 불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108불과 상단 벽에는 392불이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불단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며 지구의 재앙과 일체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광대무량 자비심을 상징한다.

이경자 작가의 작품을 불단에 모신 것은 서울 정각사 천불과 미래탑 이후 두 번째이며, 삼성미술관 리움이 '108 니르바나'를 소장하고 있다. 이경자 입사장의 작품은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 전당,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 등 특별한 전시에서 관람을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율하선원에 봉안돼 새로운 불상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점안 의식을 통해 율하선원은 김해지역 명소로 발돋움할 것과 간화선 수행 및 포교 다짐으로 김해 지역 수행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주 수불 스님은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도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전통과 구태는 다르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전통이다. 구태는 뒤떨어진 예전 모습을 따라가는 것으로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된다"며 "시대에 맞는 불교의 모습을 고민했고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이 곧 포교이다'라는 신념으로 지냈고 그 결실을 또 맺은 것 같다. 간화선 수행과 포교의 거점으로 김해 가야불교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석산 스님은 "은사이신 수불 큰스님께서는 저에게 '죽을 때 까지 포교하라'는 한마디 당부를 하셨다"며 "30년 동안 스님의 삶을 지켜보며 회주 수불 스님의 삶이 새겨져 나침반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것 같다. 죽을 때까지 포교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은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김해 율하선원은 간화선 수행으로 포교하며 수행을 이끌어 주신 수불 스님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간화선 수행의 가치를 널리 드높이는 포교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회주 수불 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서시고 세계불교의 디딤돌 역할을 하셨다"며 "율하선원은 가야불교의 중심지였던 김해에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 석산 스님은 율하선원을 통해 은사이신 수불 스님의 수행방법을 정착시키고 포교의 도약처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율하선원은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다. 장유동은 인도 아유타국 태자이자 승려인 장유화상이 처음 절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으며, 지역민 평균 연령이 32.3세로 젊은 신도시 지역이다. 김해 장유의 불교적 의미를 강조하고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포교를 위해 세워졌다. 율하선원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 총 4층 규모이며, 대지면적 1356㎡, 연면적 1919.3㎡ 규모이다. 현대식 건물 2동이며 건물 가운데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요사채, 법당, 공양간, 다도실 등 주요 시설이 있다. 신도시 인근 산책로에 위치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배산임수형이다. 앞으로 율하선원은 정기적인 간화선 법회와 집중수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법회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날 계획이다. 정식 개원은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개원

문수복지재단, 확장 이전 개원식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5월 25일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확장 이전 개원식을 봉행했다.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3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어르신주간보호서비스로 시작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수복지재단은 2018년 법인을 설립하고, 80여 평의 공간에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개관했지만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도 협소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한 번 더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

이번에 개관한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792㎡(240평) 규모에 4층이며,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공간과 야외활동을 위한 옥상 정원 및 텃밭을 조성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지난 3년 간 어르신들을 위해 문수노인복지관을 운영해왔지만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더 넓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쾌적하게 모시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성 센터장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손발이 되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설 이용자 가족 박수정 씨는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는 현재 88세이시고 늘 건강하셨지만 3년 전 대상포진으로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노인복지센터를 다니신 후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을 되찾으셨다.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저와 저의 가정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한편,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이전 개원 후 서비스를 확대해 목욕 세탁서비스와 방문의료서비스, 인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24시간 단기보호 서비스 및 야간보호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5회 부산불교대상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5월 20일 부산연등회서 시상식

부산지역 불교 발전에 헌신하는 불자에게 시상하는 '제5회 부산불교대상'의 대상에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보운)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 '제5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이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불기 2567년 부산 연등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서보석(반도산전 대표), 신기열(목원개발 대표), 삼광사 차문화회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명숙(대한불교 진각종 유가합창단 단장), 최은숙(해동중학교 교사), 고담나누미 봉사회가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 최금식 회장은 남다른 불심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회장, 길상사 신도회장(10년 이상)을 맡아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팔관회, 부산불교신년하례회를 비롯한 각종 불교 관련



행사를 위해 후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최 회장은 선재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빈곤국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 선보등대를 설립하고 티베트 등 제 3세계 빈곤국가의 아동을 위한 학교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정비, 연탄배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의료기관 물품 기증 및 무연고 환자 생필품 기증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선공공업, ㈜선보유니텍, ㈜선보하이텍, ㈜선보피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 충국성불사, 신중탱화 점안법회 봉행

전투기, 장병 등 그린 새로운 탱화
초대 군법사 심산 스님 증명



공군교육사령부 충국성불사(주지 도혜)가 5월 24일 경내 법당에서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충국성불사가 새롭게 조성한 신중탱화는 공군교육사의 정신을 그린 것으로, 전투기와 공군장병의 전투복, 정복을 입은 장병의 모습,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국성불사 초대 군법사를 지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의 증명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개회사,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탱화공개, 청법가, 입정, 법문,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충국 성불사 주지 도혜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미륵암 담산 스님, 前 군종실장 각원 스님, 군종실장 진홍 법사, 석보사 도운 스님, 반야선원 담운 스님, 유재문 교육사령부 소장, 윤진호 대령, 금경연 대령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법어에서 "정법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중들이다. 오늘 불사를 통해 이곳을 찾는 불자들과 장병들이 성장하고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군 사령부를 제대한 후 인연을 이어 포교를 해왔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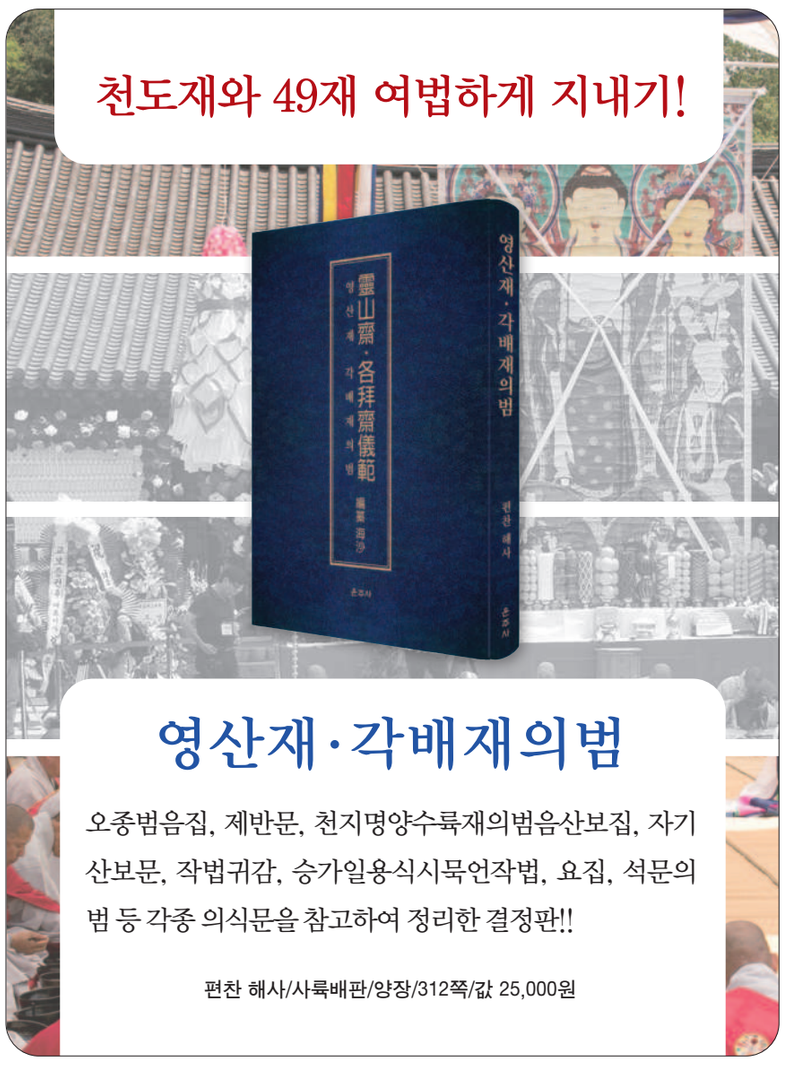
유재문 장군은 환영사에서 "신중단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심산 스님과 인연이 되어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사령부의 특색에 맞게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前 군종실장 각원 스님은 축사에서 "여러 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여기 공군사령부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선배이신 심산 스님을 뵈니 자랑스럽고 오늘 신중탱화를 모신 후 병사들의 안식처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미얀마 종교성 최고공로상 수상

이정희 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받아

국제불교지도자協과 활동 전개 우물파기, 학교건립 등에 기여 미얀마 대사, 정부 대신해 감사


이정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이 5월 24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를 수여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정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장이 5월 24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를 수여 받았다.

매년 사회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사따마 조디까다자' (Saddhamma Jotikadhaja)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란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성이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매년 미얀마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열고 작위를 수여하지만, 이번 작위 수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으로 미얀마대사관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단장은 "티없이 맑고 순수한 미얀마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불교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고, 신심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며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미얀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는 "이번 작위를 총 12분이 받으시는데, 그 중 재가자는 유일하다. 정부를 대표해서 이번 작위를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미얀마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위를 받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미얀마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등과 함께 미얀마 등지에서 우물 건립과 학교시설 지원 등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8년 서울 청진동에 미얀마문화원이 개원한 이후 문화원 운영 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정원 등의 협찬을 받아 매년 4차례 소외계층에게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10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액은 총 2억여 원 상당이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다.

봉사단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내준 이정희 봉사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많은 이들이 어려울 때 한국의 도움을 받고,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양국 불교교류의 마중물으로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위 수여식 후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에서 파견된 국장단과 이사장 목탁 스님, 이정희 봉사단장 등은 대사관 3층에서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만찬을 가졌다.

이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는 스님들에게는 '아까 마하 사따마 조디까다자'라는 '첫 번째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수여됐다. 미얀마 종교성에서는 1년 동안 공적 확인 과정을 거쳐 심사위원단인 종교성 국장단의 의견을 종합해 작위 수여 가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2013년 지구촌공생회 구호활동으로 태공당 월주 스님이, 2014년에는 미얀마 한국기술학교 건립 등으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이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

김제 금산사, 방역 관련 기관에 사찰도시락 지원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인 방역관련 기관에 사찰음식 도시락 1000개를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사진〉

금산사는 5월 24일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부주지 원혜 스님(김제 흥복사),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 전주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찬 스님, 김종열 금산사 종무실장, 이영배 불교회관 사무국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직접 각급 기관을 방문, 사찰음식 도시락 1,000개를 전달했다.

특히 스님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밖에 전북불교회관에서도 사회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이 전달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사찰음식 나눔행사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의 기본정신이 널리 퍼져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문화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도시락은 사찰음식 전문가이신 장수 영월암 주지 정효 스님이 준비했다. 일곱 가지 잡곡을 넣은 건강밥, 채수 미역냉국, 느타리강정, 두부간장조림, 생땅콩조림, 열무무침, 오이무침, 브로컬리샐러드 등의 식단으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림선원, 동국대 WISE캠에 1000만원 쾌척

동국대 건학위가 주관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통도사 장유전법도량인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이 동국대 WISE캠퍼스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5월 2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동림선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김인홍 교무학생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또한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해당사찰의 지역불교인재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40회를 맞이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재학 중인 경남 김해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동림선원이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동림선원과 학생들과의 인연이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동국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계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동림선원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희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국대 WISE캠퍼스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하동 칠불사, 제11회 선차학술발표회

5월 21일, 2023하동 세계茶엑스포 기념 일환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제11회 선차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5월 21일 칠불사 선다원에서 열린 선차학술대회는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렸다.

선차학술대회는 선다원 초의선사 진영의 헌다에 이어 1부 개회식, 2부 학술발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학술발표회는 오종근 동신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WISE 불교문화대학원장 혜명 스님의 기조강연, 송정화 동국대 교수의 '침향을 이용한 명상에 관한 연구', '김해 장군차와 운남 보이차의 품질 특성 및 전자 혀를 이용한 맛 분석 고찰' (이혜영 부산대 대학원), '칠불사 선차 문화에 대한 고찰' (이정주 동국대 대학원) 발표로 이어졌다.

또 손병욱 前 경상대 교수의 '흥덕왕 현창, 그 필요성과 방안의 탐구'를 주제로 초청강연에 이어 '한재 이목의 〈다부〉에 나타난 다도수양에 대한 고찰' (이효정 부산대 대학원), '차 미학 정립을 위한 차 문화공간 분석체계-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송연민 동국대 대학원)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는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칠불사는 다성(茶聖)으로 평가받는 초의 선사가 〈다신전〉을 기록한 곳으로 차의 중흥지로 알려져 있다. 매년 산사 등불차회 및 선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차 문화 및 선의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차학술발표회를 통해 선차의 학문적 탐구와 선차문화의 이해를 꾀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올바른 차 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수·합창단 어우러진 찬탄의 무대

창원불교, 시민 봉축음악회 개최



창원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안, 성주사 주지)는 5월 23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불기 2567년 창원특례시 연등축제 봉축법요식과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시민봉축음악회는 백근곤 MBC경남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하며 일약 국민가수로 떠오른 박창근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JK 김동욱',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TOP 4위에 오른 가수이자 국악인 김태연 양이 출연해 감동을 선사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경남리틀싱어즈의 공연과 바리톤 김기환, 소프라노 김보민이 출연한 클래식 공연이 펼쳐졌다.

여기에 불곡사 보리수 합창단, 성주사 가릉빈가 찬불단, 정법사 분다리카 합창단, 구룡사 우담바라 합창단. 봉림사 가루라 합창단, 봉원사 봉원사 합창단, 불지사 사성단 합창단 등 지역 합창단원이 한자리에 모인 창원특례시 연합합창단의 공연히 펼쳐져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다.

한편, 부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을 공양하는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봉축법요식은 구룡사 주지 무성 스님의 사회와 성주사 교무 호명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의식, 기원문, 봉축법어, 봉축사, 경축사, 찬탄경문, 발원문 낭독,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광법사 광우 스님은 "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열리고 화합하여 마침내 너와 내가 없는 하나 된 세상을 이루자"며 "보리심을 얻어 부처님의 진실한 도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자기를 낮추는 하심(下心)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국가적 위난 극복을 위해 우리 불자들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불교회관, 봉축 장학금 '자비행'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법요식을 연데 이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불교회관은 5월 23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열고 이광윤(진주고3), 박영빈(혜광고3)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또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이 경주 열암곡 마애불세우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진주불교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에서 봉사한 구영석 불자(진주비봉로타리클럽)가 바라밀상을 수상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자비"라며 "하심하여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 건강한 삶을 실천하자. 그것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다"고 말했다.

가야불교대학 학장 지현 스님(평안사 주지)은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며 "앞으로 진주불교회관이 단순한 불교회관을 넘어서 진주시민을 위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불교, 연등축제로 '환희의 장' 열어



익산불교봉축위(위원장 일행, 정각사 주지)는 5월 21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연등축제는 익산문화원 풍물패 길놀이로 시작됐다. 여기에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태봉사 주지)가 영산작법을 시연해 불교문화 진수를 선보였다.

이날 봉축법요식은 전북봉축위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익산불교봉축위원장 일행 스님, 태봉사 주지 영산 스님,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종회의원 각진 스님, 진각종 심인당 원영 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석희 전북불교청년회장, 가릉빈가 합창단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익산불교봉축위원장 일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희귀 티베트어 불경 필사본, 힌디어로 출판

1930년대 인도 불교학자 라훌 입수
비하르 주정부, 2019년 번역 계획
"인도 국민 모두 볼 수 있다는 뜻"
불경, 논장 등 5권으로 구성 예정

박영빈 객원기자


번역작업의 원본이 되는 티베트의 필사본들을 보는 비하르 주지사(좌).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근대 인도불교와 언어학자로 유명한 라훌 산크리티야얀(1893~1963)이 티베트에서 인도로 가져온 티베트의 고대 불교 필사본이 힌디어로 번역됐다. 5월 19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 등은 현대 인도에서 되살아나는 고대 인도불경의 유산들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어 필사본들은 1930년대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불교학자인 라훌 산크리티야얀이 4차례의 티베트 방문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라훌은 당시 스리랑카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었고 이 덕에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의 협조를 얻어 노새 11마리 분량의 필사본과 불화, 불상들을 수집하여 인도로 귀국했다. 현재 이 유물들은 인도 파트나 박물관에 '라훌 컬렉션' 으로 보존되고 있다.

라훌 컬렉션을 현대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로 번역하려는 계획은 2019년 시작됐다. 비하르 주정부는 바라나시에 소재한 중앙 고등 티베트 연구소(CIHTS)와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교리와 철학을 접하는 것을 목표로 번역 사업에 착수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힌디어 번역본 인쇄를 위해 1940만 루피(한화 약 3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CIHTS의 한 연구원은 "이 필사본들의 원본은 고대 인도불교의 거점이었던 날란다 대학과 비크라마실라 대학에서 저술되고, 소장되었던 산스크리트어 원고들"이라며 "그 원고들이 7~11세기 사이에 티베트로 전해졌고 인도의 학자들과 티베트인 역경가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필사본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훌 컬렉션의 필사본들에는 불교철학, 명상수행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을 비롯해 의학, 법률, 수사학, 점성술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의 책들이 포함돼 있다. CIHTS의 부총장인 게쎄 아왕쌈땐 스님은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책들을 다시 힌디어로 번역하는 것은 비하르주 뿐만 아니라 인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고대 인도 불교의 보고인 날란다와 비크라마실라의 지적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번역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

현재 번역이 완료돼 출판준비가 된 문헌들은 먼저 5권의 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업분별경〉, 〈반야심경〉과 같은 불경과 〈중관장엄론〉 등의 논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10세기경 인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논사로 만년에 티베트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아띠 디빵까라의 (980~1053)가 문집 및 기타 희귀 사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CIHTS 측이 밝혔다.

CIHTS 측 관계자는 원래 연구소 국제 베삭데이인 지난 5월 5일에 5권의 책을 출판하기로 주정부와 합의돼 있었으나 몇몇 이유로 지연됐다고 전했다. 번역사업을 후원하는 비하르 박물관과 비하르 주정부 문화예술부 측은 "지연이유를 시급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책을 출간할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전체가 탱화공장…티베트 불화마을 '우툰' 화제

예술작품으로 MZ세대에게도 각광
금전 관심보이는 외부작가 경계도


탕카학교에서 습작을 그리고 있는 우툰마을의 학생들. 사진출처=식스 톤 닷컴

티베트 고원의 외딴 마을인 '우툰'. 최근 이곳은 티베트 전통 불화인 탕카를 조성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마을 전체가 탱화공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우툰마을을 지난 5월 20일, 중국 뉴스 전문 포털인 '식스 톤 닷컴' 이 특별 보도했다.

동부 티베트인 암도, 렙꽁 지역의 외딴 마을인 우툰은 오랫동안 티베트 불화인 탕카를 그려온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현재 우툰마을을 중심으로 렙꽁지역에서 탕카 조성,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장인들은 최소 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7억 8천만 위안(한화 약 1,500억 원)으로 현재 이를 바탕으로 탕카 산업은 더욱 성장하는 추세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탕카가 시작된 것을 10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으며 15세기까지는 평범한 지역화풍으로 이어져 오다 16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우툰 지역 탕카의 특징은 다른 화풍들에 비해 더 밝은 색상으로 그려지며 화려한 순금 장식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꼽힌다. 특히 국경지대였던 만큼 중국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탕카 속에 묘사되는 풍경이나 인물의 의복들이 중국 전통 수묵화에서 보이는 도안이라는 점도 각광받고 있다.

우툰지역의 탕카는 불교 박해가 극심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비밀리에 전수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호황에 따라 커진 미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유네스코가 탕카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예술형식으로 지정하면서 탕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우툰에서 탕카 갤러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탕카는 특히 베이징이나 항저우, 상하이처럼 불교문화가 뿌리 깊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 등의 상황 속에서 호신불용으로 그려진 소형 탕카들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MZ세대들 가운데서도 탕카 애호가들이 늘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중국 전역에 퍼진 탕카 열풍은 우툰마을과 렙꽁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줬지만, 현지 티베트인 작가들의 걱정도 만만찮다. 우툰의 유명한 탕카작가인 체링따시는 "우툰지역은 전통적으로 탕카를 그리려는 학생을 사찰로 보내 스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서 탕카를 배우게 했다. 탕카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예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스님들 가운데 수행으로 탕카를 그리는 분들도 많다"면서 최근에는 금전적인 관심으로 탕카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나 외부 작가들을 경계했다.

조악한 탕카의 유행이나 작가들에 대한 노동착취도 문제시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탕카 작가는 "일주일에 단 하루 쉴 수 있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탕카만을 그린다. 바깥세상을 보고 싶다. 탕카를 그린 대금도 대부분 중개상이나 갤러리가 가져가 실제 수익이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스님들 행각 순례단 구법 여정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까지 매일 30km 걸어


태국 행각 순례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CNN

태국스님들이 태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까지 행각 순례를 수행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5월 18일 인도네시아 국가 통신사 '안타라' 는 태국 스님들의 행각(行脚) 순례를 보도했다. 행각 순례는 수행자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 불법(佛法)을 익히는 구법 여정이다.

3월 27일 태국에서 출발한 32명 행각 순례단은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기념하는 웨삭데이(Vesak Day)를 기념하기 위해 6월 2일 보르부두르 사원에서 대장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순례단의 마하 오르 스님은 "3월 27일 태국에서 행각 순례를 시작한 우리는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혹독한 더위나 폭풍우 속에서도 매일 30km, 휴식기간 동안에는 15~20km씩 불법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다.

최종 목적지인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각 수행하는 순례단은 자바 찌레본에서 휴식을 취했다. 순례길을 따라 선 수천 명의 찌레본 주민들은 태국 행각 순례단에게 손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한 스님은 "사흘 전에는 이슬람교가 우세한 인드라마유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민들에게 커피를 제공받기도 했다. 행각 순례 중 여러 국가를 방문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주어 인도네시아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환영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도네시아는 불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있는 사회"라며 칭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들, 영국서 티베트 불교의례

뉴버리 봄 축제 '자비의 힘' 초청받아


따쉴훈보 사원의 스님이 의식무로 법열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출처=나탈리아 블롬베르크

지난 5월 21일 영국 지역 주간지 '뉴버리투데이' 는 뉴버리 봄 축제의 티베트 불교 의례 시연 소식을 전했다.

영국 버크셔주에 위치한 뉴버리 봄 축제 '자비의 힘' 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불교 의례를 시연했다.티베트 사원 '따쉴훈뽀' 서 온 8명의 스님들은 개회식으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는 칸도땐슉 기도를 봉행했다. 각각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예복을 무대에 펼쳐 높고 긴 나팔과 법고를 치며 법요식을 알렸다. 이후, 승려들은 귀의와 발심 기도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켰다. 작은 바라인 띵샤로 깊은 명상을 향해 이끌며 고통을 덜어주는 의식을 치렀다.

쬐(chod)기도를 통해 스님들은 자신의 팔 다리 등을 배고픈 아귀와 귀신들에게 내어주는 관상을 통해 무상관을 수행했다. 쬐 기도가 끝난 후, 진행된 의식무에서 스님들은 단도와 해골모형이 장식된 모자 등 불교적 의미가 담긴 상징들을 들고서 죽음을 물리치는 춤을 공연했다. 또한 금강계 37존을 예찬하는 기도에서는 각 불보살들을 상징하는 수인을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불보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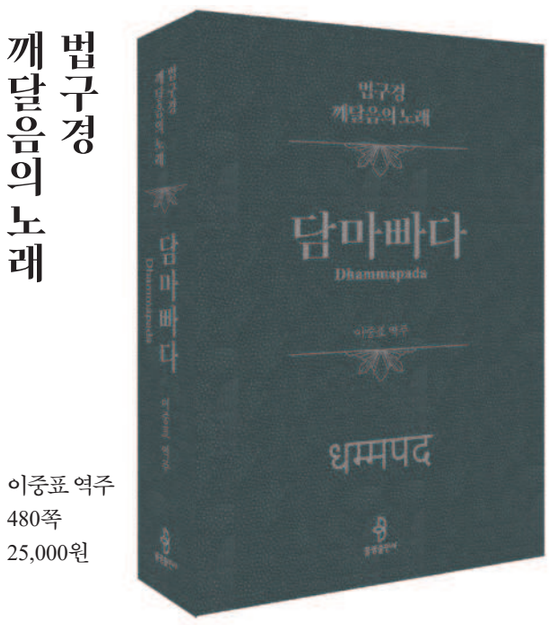
스님들은 마지막으로 마장을 쫓아내는 검은 모자 춤과, 불교철학을 대론하는 티베트의 논쟁을 직접 시연하며 어려운 시기에 모두를 위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모든 기도와 시연의 공덕을 회향했다. 관계자는 " '자비의 힘' 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티베트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따쉴훈뽀는 티베트에서 영향력 있는 사찰 중 하나이며 티베트 불교의 2대 지주이자 따쉴 훈뽀의 정신적 지도자인 11대 판첸 라마는 1995년 달라이라마의 환생 선언을 통해 지정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계승 개입 및 납치로 당시 6세이던 11대 판첸라마는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첫 완역 책!

《담마빠다(Dhammapada, 법구경)》!



이중표 역주
480쪽
25,000원

담마빠다
Dhammapada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의 고전(古典)
《담마빠다》 빠알리어 원전을 고스란히 옮기다
우리말 담마빠다의 새로운 표준!



딱 한 권 불경을 읽어야 한다면 《담마빠다》를 읽어라!
가장 바른 《담마빠다》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담마빠다》는 8음절로 이루어진 운문 형식이기 때문에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단어를 배치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번역에는 종종 의미가 모호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역자는 이 번역에서 원전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명쾌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_머리말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0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언제부턴가 지안 금어가 혼신을 다해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곁에 제 아들을 그려 넣었다는 '쌍불도'였다.



부처님 옆에 자기 아들 그린 지안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모르겠다는 듯이 난타가 눈을 치떴다. 그러자 아나율 사형이 몸을 돌리며 이런 말을 하였다.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심을 내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지옥에 가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무슨 소립니까?

-모름지기 수행인은 지옥에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운다는 말이다.

-아니 지옥에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우다니요?

-진정한 수행승이라면 구해야 할 중생은 지옥에 있을 게 아닌가. 지옥을 천상으로 전환하는 작업. 그것이 곧 승이 할 일인데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신심을 내고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난타는 그만 다시 절망하고 말았다.

어느 날 붓다는 그런 난타를 위로해 주기 위해 그를 찾았다. 붓다는 난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난타야, 수행인이 원적(圓寂)을 구함으로 욕심을 없애는 것은 지옥과 천상이 동일선상에 있을 때이다. 진정한 붓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마음이 있을 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천상과 지옥은 네 마음의 환영이며 너 자신 역시 우주의 마음일 뿐이니라. 아직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걸 깨달으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것이니라.

-!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때가 있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것이다. 이것을 버려야 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법을 닦고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사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원만을 성취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여라. 내가 경험하여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마저 의심하여라. 그러면 언젠가 해답을 얻어 자연히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니라.

붓다가 말하는 동안 난타는 눈물을 흘렸다. 붓다의 거룩한 자비심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비로소 무엇인가 알 것 같았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한 줄기 빛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길로 난타는 마음을 다잡았다. 참된 수행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뉴델리에서의 며칠 ③

빗소리가 잠자리를 어지럽혔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글을 읽었다. 때로는 글자를 조립하고 문장을 만들어 이해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눈이 침침해 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새벽이었다. 글의 양을 가늠해 보면 금방 읽을 것 같은데 한 문장을 두세 번을 읽어야 하니 량이 줄지를 않는다.

아침.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글 때문일까? 이상한 감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으므로 우산을 찾아 쓰고 밖으로 나갔다.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향해 걸었다. 도심을 벗어나자 산기슭이 나타났다. 빗줄기는 고색창연한 종려나무의 무성한 숲을 때리며 멈출 줄을 몰랐다. 종려나무 원통형의 거친 털들의 모습이 엉긴 내 마음 속 같다. 어린 날 초등학교 한 편에 있던 종려나무의 어린잎을 우산 대신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떠올랐다.

그곳을 벗어나자 황갈색의 덤불숲이 깔린 계곡이어서인지 키가 큰 노란 낙엽송 밑이 음습해 보였다. 비안개에 젖은 산정이 운치 있게 계곡을 물들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때때로 노쇠한 종려나무 숲 너머로 비에 젖은 새들이 이리저리 건너뛴다. 좀 전까지 읽었던 글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며 흘러나왔다.

점차 비가 멎었다. 비가 멎자 공기가 상쾌하다. 나는 가끔 산정을 향해 고개를 들곤 하였다. 내린 비 때문인지 산정에도 맑고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녹회색, 암적색, 보라색 그리고 백색과 회색 등이 서로 뒤엉켜 범치 못할 무늬를 이루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뒤덮였다.



점차 햇살이 검은 구름장을 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사나운 빗소리가 사라져버린 주위는 섬뜩할 정도로 깊은 정적 속에 묻혀들었다. 무한한 공간 속에 투명한 빛만이 신선하게 뒤덮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검게 그을린 빛으로 잔뜩 뒤덮였던 산언덕도 그 비로 인해 생기를 찾았는지 맑고 투명한 빛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비가 머물다 가 버린 공간 속에서 뚜렷이 떠올라 있어 마치 한 폭의 미세화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산을 등지고 한참을 걸었다. 걷다 보니 일전에 찾아갔던 천추사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기로 온 것일까? 그 글 때문이라면 온 김에 조실스님이나 만나보고 갈까? 조실스님에게 글을 쓴 사람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은가.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며 조실스님은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차가 식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는 이석원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조실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내가 이석원에 대해 끈질기게 물어대자 조실스님이 비로소 시선을 들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혹시 쌍불도(雙佛圖)란 그림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고 물었다.

-쌍불도?

내가 되물었다.

-그런 그림이 있소이다.

-쌍불도라면 부처님이 두 분 그려졌다는 말인가요?

-맞소. 지안 금어가 언젠가부터 혼신을 다해 그리는 그림이었지.

-그래요?

내가 확인하듯 물었다.

-그렇소. 본시 본존 곁에는 사리자존자나 문수보살 등 협시불이 조그맣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지안 금어는 협시불 대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불위로 또 한 분의 부처님을 그린 것이오.

-같은 불위라면?

-쉬운 말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과위로 또 한 분을 더 그리고 있었다는 말이오.

순간 이지안 금어의 사건 현장에서 조실스님이 보았다던 타다만 그림이 생각났다. 거기 있었다는 붓다의 존상. 그 곁의 뼈만 남은 팔뚝. 그럼 그 임자가 쌍불의 주인공?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도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층이 있는 법이오. 출가하려 하지만 의발(衣鉢)을 얻지 못하고 절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행자, 출가하여 십계를 받았으나 구족계를 받기 전이면 사미, 구족계를 받았다면 비구, 수행이 깊다면 보살, 수행이 지극에 이르렀다면 붓다, 쉽게 나누어 본 것이오만 깨침의 정도인 각(覺)과 분(分)이 모자라 그런 불위가 생겨났고 그것이 불위의 원칙인데 어떻게 쌍불이 있을 수 있겠소. 부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다니. 그런데 쌍불을 그려 놓고 있었다는 거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누군가 물었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불위로 그려진 또 한 분의 부처님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서슴없이 제 아들을 가리켰소.

-예?

-이석원이 말이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하여 벼락 치듯 물었다.

-아들 이석원이를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미쳤지.

-금어스님이 부처님 곁에 자기의 아들을 그려 놓았단 말입니까?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제 아들이 부처라는 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침을 꼴깍 삼키고 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다가 물었다고 하오.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옛날의 난타 비구가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것이오.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며 다시 물었소. '난타 비구가 어디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하오. '내 곁에 있지 않은가.' '그대의 아들이라고?' '그렇다.' '미쳤군.' 그랬는데 다시 누군가 물었다고 하오. '그럼 그대는 전생의 누구인가?' 아들의 아비이면 전생의 슛도다나왕(석존의 아버지)이 되고 스승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냐 그렇게 물은 말이었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뭐라구요?

-환생한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네? 환생?

그러잖아도 윤회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대답해 버리자 나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다.

-환생이라니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오. 문제는…. 그 후요.

-그 후?

-지안 금어가 쌍불도를 그려 자신의 방에 걸고 나자 이번엔 아들 이석원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아들이 벽을 보고 돌아앉아 버린 것이오.

-벽을 보고 돌아앉다니요?

-식기를 끊고 눈을 감고 돌아앉았다는 말이외다.

-그러니까 선정(禪定)에 들었다 그 말입니까?

그제야 말을 알아들은 내가 물었다.

-그렇소. 그런데 그때부터 아비가 거리로 내려가 그림을 팔아서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것이오. 이미 여권 기간이 지났는데 말이오. 한국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길래 양식과 용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려나 하고 한 번인가 빠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요?

-결국 아들이 피를 토하고 널브러졌소. 식기를 끊고 열흘이나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하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실스님이 잠시 사이를 두자 내가 물었다.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살렸는데 지안 금어가 불에 타 죽은 것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소. 사람들이 아들 이석원에게 물었다고 하오.

-뭐라구요?

-아버지를 왜 죽였는가? 사람들은 아들이 아비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오.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화중연화(火中煙花)가 아니라 화중생연(火中生蓮)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말 흉내를 제대로 낸다고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한 줌 연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속의 꽃이 되었다고 말이오. 사람들이 재차 물었다고 하오. '스승인 아버지를 왜 죽였나?'

-그랬더니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조실스님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듯이 또 말했다. 말에 멋을 부릴 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외에도 말 흉내를 제대로 내고 있었다.

-'그럼 누가 죽였는가?' '부처지 누구이겠는가?' '부처라니? 부처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자가 사람만 죽이겠는가. 천지 만물이 그자 안에 있다. 공자가 칼 한 자루 지니고 조선으로 건너오면 조선이 망했을 것이다. 세상이 그의 사상에 갇혀 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겠는가?' 〈계속〉

"명성 스님의 일생은 그 자체가 기념비적인 생애이다"



한국 현대 비구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명성 스님!
명성 스님의 생생한 구술과 회고로 집대성한 삶과 수행 이야기,
그리고 한국 비구니사를 증명하는 증언사료집!

올해 세수(世壽) 94세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한국 현대 비구니사의 산증인으로서 현재 조계종 비구니 6,000여 명 가운데 2,200여 명을 길러낸 주역이다. 이 책은 명성 스님이 자신의 일대기를 직접 회고하고 서술한 증언 자료집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스님의 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 비구니 역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친인 관응 스님을 비롯해 탄허, 경봉, 법정, 광우, 묘엄 등 큰스님들과의 인연담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자료로 새겨진다.

김광식 지음 · 352쪽 · 25,000원



명성 스님 수행록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단 한 번의 역사에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반도의 중심' 강화는 어떤 섬인가?

단군, 고려, 대장경, 병인양요, 전등사, 이규보
그리고 섬이 품어온 사람들까지 하늘·땅·사람·마음에 새겨진 이야기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 주연이었던 강화와 만나다!

강화도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늘 먹었던 먹거리, 보던 풍경,
찾았던 핫스팟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여행으로만 접근하기엔 너무 아쉬운 강화에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
강화를 인문학으로 새롭게 접근한 이 책은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렘처럼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잘 모르는 강화와의 색다른 만남을 예고한다.



노승대·김성환·강영경 외 12인 엮음 | 256쪽 | 20,000원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11 생사 윤회의 정견과 禪



▶한줄 요약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무아의 지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아'를 깨치지 못했다면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없애지 못한다.

무명중생에겐 '脫생사윤회' 멀고 먼 일

죽음의 괴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다. 아무리 부자여도 권력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죽음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는 윤회나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가는 사후 세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첫 설법인 〈초전법륜경〉에서 당신은 "중도(中道)를 깨달아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고 설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다. 죽지 않는 문을 열어 보임은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 지속되는 윤회 문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니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일으킨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명(無明)에 덮인 중생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치달리고 윤회하므로 그 시작점을 꿰뚫어 알 수 없다."(〈상응부경전〉)

인간은 깨달음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을 일으켜 삶과 죽음의 윤회 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여 믿고 행하면 생사 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부처님은 안내한다.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설은 같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불자들 사이에도 이 윤회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돈과 논란이 있다.

먼저, 윤회는 힌두교의 교리이고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으니 불교에서는 윤회가 없다는 주장이다. 힌두교가 윤회를 말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도의 4성 카스트제도를 합리화하는 브라만 계급이 만든 윤회설이 있다. 금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그만큼 선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생에서 지은대로 내생에 태어난다는 힌두교의 윤회설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宿命論)이다.

이와 같이 힌두교의 숙명론적인 윤회설과 달리 불교의 윤회는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설(因果說)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즉, 불교는 숙명론의 윤회가 아니라 윤회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힌두교는 윤회하는 진아(眞我)를 말한다면, 불교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중도 무아의 깨달음을 말하니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남방 상좌부 승가의 명상법

그런데, 근래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윤회가 불교의 핵심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느 이름 있는 재가 수행자는 자신의 저서와 방송을 통

붓다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니
스스로 일으킨 어리석음으로
인간은 생사윤회 괴로움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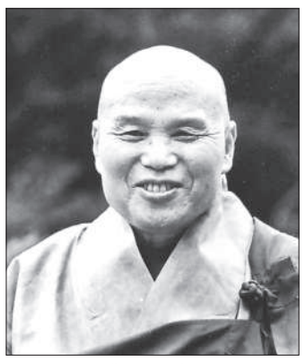
하여 "불교의 핵심은 윤회이며, 수행을 통하여 전세 5생과 후세 5생을 관하는 수행"으로 자기의 전생과 내생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의 곳곳에서 전생과 윤회에 관한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이 아닌 윤회라고 주장하니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전세 5생과 내세 5생을 관찰하는 수행과정을 말하니 더 놀랍니다.

실제 미얀마 파욱명상센터의 파욱스님의 법문집 〈사마타 그리고 위빠사나〉(무념 옮김, 명상선원 오솔길)라는 책을 보니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기간 동안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하며 과거로 나아가서 '전생의 죽음의 순간의 순간의 정신-물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안내한다.

현존하는 남방 상좌부 승가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라는 파욱스님은 이렇게 전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미래의 삶에서 원인과 결과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파욱스님은 이렇게 내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안내한다.



티베트 탱화 육도윤회도.



성철 스님은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이라고 말했다.



남방 상좌부 승가의 대표적 선지식 파욱 스님.

"여러분이 보게 될 미래는 계속 변할지도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해서, 무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미래의 삶을 식별해야 한다. 무명의 소멸은 아라한도의 증득과 함께 일어난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정신-물질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식별했다면, 당신은 두 번째 통찰지(위빳사나), 즉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를 완성한 것이다."

파욱스님은 과거 전생을 관찰하여 통찰지를 얻은 사람은 미래 내생을 관찰하여 무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래의 삶을 식별해서 마침내 무명을 소멸시켜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내생 관찰 수행법을 닦으라고 안내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전생도 알 수 없는데 내생까지 관찰하는 수행이라니….

무아(無我)라고 생사 윤회는 없는가?

간혹, 유튜브나 SNS를 보면 불자라면서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말한다. 실은 경전에도 이런 주장과 반박의 문답이 나온다. 〈장아함경〉 '폐숙경'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하가섭이 500비구와 함께 코살라국 어느 숲에 머물고 있을 때 근처에 사는 한 바라문이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고 주장하며 가섭 존자를 찾아와 이렇게 문답한다.

"나는 저 세상도 윤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내 친척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저 세상이 있거든 구경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에서 급한 볼 일이 있으니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저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무아'란 부처님 말씀 이해했다고
생사윤회서 벗어나는 것은 아냐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한 것일 뿐

없다."

"비유를 들겠다. 그대도 잠잘 때 꿈을 꿀 것이다. 그대가 꿈꾸는 것을 그대의 가족들이 볼 수 없다고 그대에게 인식이 없는가?"

생사 윤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말씀을 믿지 않는 이는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사 윤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는 영원히 윤회와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무아이니 윤회란 없는 것인가?

흔히 불교 공부를 좀 한 불자도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말씀하셨으니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무아의 지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아'를 깨치지 못했다면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없애지 못한다.

'무아'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한 것일 뿐이다. 무아라고 아무리 말하고 생각한들 무아가 되어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밥을 말하고 아무리 간절히 밥 생각을 할지라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오직 각고의 정진으로 무아임를 깨달아 증득해야 한다. 입으로만 무아를 말하고 행은 유아에 머물러 있다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불교는 무아이니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견해를 부처님은 단견(斷見)에 떨어졌다고 경책하셨다. 반대로 내가 있다고 보고 깨달음과 무아를 부정하는 이를 부처님은 상견(常見)에 떨어졌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정견은 단견과 상견의 양변을 떠난 중도 무아이다.

생사 윤회에 대한 禪의 지혜

본래성불을 종지로 하는 선종에서는 생사 윤회를 어떻게 보는가? 선종의 6조 조계혜능대사를 찾아가서 첫 만남에서 깨침을 인가 받고 〈증도가(證道歌)〉라는 주옥같은 선어를 남긴 영가 현각 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계(曹溪)의 길을 깨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선(禪)에서도 부처님처럼 깨치면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영가 대사가 말하는 조계의 길이 바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말한다.

조계종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설법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얻을 수 없다. 현재도 또한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이니 잡을 수 없다. 이것이 중도 정견이고 선의 지혜이다.

우리나라 선사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생사(生死)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나면 캄캄하듯이. 하지만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본래 생사란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이 현실 이대로가!"(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담, 1982년 1월 1일)

성철 스님이 생사도 윤회도 본래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생사 윤회가 없다는 말이지,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생사 윤회는 멀고도 멀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⑪ 양산 통도사 목조소통(疏筒) 3기



▶ 한줄 요약
소통은 불교의식을 행한 발원문 등의 글을 적어 넣어두는 통이다. 쉽게 말해 소원을 담은 글을 간직하는 통이라 보면 된다.

간절한 발원, 꽃살로 장엄하다

소통, 소망하는 글을 보관하는 통

한 사찰의 중심 불전엔 당대의 종교장엄 역량이 결집한다. 특히 부처님 상을 모신 장대한 불단엔 불교의식을 위한 의례 장엄구들을 특별히 제작하여 배치한다. 향로와 촛대, 불패, 경전함 등이 그런 의례 장엄구들이다. '소통(疏筒)'도 그 중의 하나다. 소통은 '소대(疏臺)'라고도 부르는데, 이름부터 낯설다. 어디에 사용하는 의례구인지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소통은 불교의식을 행한 발원문 등의 글을 적어 넣어두는 통이다. 쉽게 말해 소원을 담은 글을 간직하는 통이라 보면 된다. 생김은 편평한 긴 사각기둥 모양이다. 대체로 불단 위 불상의 좌우에 하나씩 한 쌍을 배치한다. 소통의 '소(疏)'는 '소문(疏文)'을 의미한다. '소문'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 확 트인 글이고, 소통하는 글이다. 조선시대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소문을 분류하면 대체로 네 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소망을 적은 발원문. 둘째,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 셋째, 일의 전후 과정을 소상히 밝힌 글. 넷째, 상소문 등이다. 첫째와 둘째는 불교 성격의 소문이고, 셋째와 넷째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등장하는 성리학적 성격의 소문이다.

불교 경전과 관련하여 경전의 내용을 쪼개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것을 '소(疏)'라 한다. 주석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징관의 〈화엄경행원품소(華嚴經行願品疏)〉, 당나라 법장의 〈반야심경략소〉 같은 종류다. 그때 소문은 경전의 원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글이다. 책으로 엮을 만큼 장문이다. 그 정도면 소통에 적어 보관하기엔 역부족이다. 소통의 중심부엔 위패처럼 생긴 긴 판목이 꽂혀 있다. 판목의 길이는 대체로 1m 정도이고, 폭은 15~20cm 정도다. 소문을 판목에 직접 쓰거나 판목에 부착, 또는 끼워 넣어 보관한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불단 위 소통에 보관하는 소문은 거의가 발원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수륙재, 천도재 등에서 사용한 발원문 등을 중점적으로 갈무리했다.

현전하는 소통은 근 30점에 이른다. 거의가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제작됐다. 현재까지 제작연대가 알려진 소통은 다섯 점이다. 부산 범어사 소장 웅신사명 목조소통(1661년), 곡성 도림사 소장 선유사명 목조소통(1661년)과 1672년 목조소통, 영천 은해사 목조소통(1713년), 영동 영국사 목조소통(1749년) 등이다. 이 중 은해사 소통을 제외하고는 묵서명에서 한 결 같이 소통을 '소대(疏臺)'라고 적어 뒀다. 소통 기단부 밑바닥에 묵서를 남겼다. 영국사에선 "건륭14년 기사11월일 영국사 소대(寧國寺 疏臺)"라 썼고, 도림사 소통에선 '선유사 유전어소대야(仙遊寺留傳於疏臺也)'라고 적어 뒀다. 소통의 고유 명칭이 '소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유기능과 형태를 보면 '소통'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소통이라는 용어로 일관한다.

몸체에 불단과 꽃살문 장엄 재현

소통의 크기는 90~135cm 정도다. 가장 큰 것은 범어사 소통으로 132.6cm에 이른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기단, 몸체, 뚜껑 세 부분이다. 몸체의 폭은 20cm 안팎이고, 두께는 8cm 안팎이다. 몸체 내부엔 소문을 쓰거나 끼워 넣는 얇고 길쭉한 사각형 판목이 칼집 속의 칼처럼 꽂혀 있다. 그 위로 뚜껑을 덮는다. 기단은 대체로 상하 이단으로 제작한다. 부산 범어사, 영천 은해사, 곡성 도림사, 예천 용문사, 영동 영국사 등의 소통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기단부 형태다. 상하 이단의 기단형식에선 상층에 난간을 두르는 공통 특성도 보여준다. 여러 소통을 비교할 때 소통의 전형 형식은 난간을 갖춘 이단 형식의 기단부에 비석처럼 생긴 얇은 두께의 길쭉한 사각기둥의 몸체를 꽂고 그 위에 간단한 사각형 뚜껑을 씌운 형태로 정리된다. 그 중에는 여수 흥국사 소통처럼 몸체를 육각기둥으로 제작한 특수한 것도 있음은 물론이다. 목조소통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이 집중되는 곳은 몸체다. 몸체의 앞뒷면과 양 측면에 불단이라든지 꽃살문, 천정장엄에 조각한 문양과 채색들이 재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법당 장엄에서 나타나는 소재들, 이를테면 용, 봉황, 연꽃, 모란, 범자장엄, 넝쿨연화문, 새, 물고기 등이 두루 장엄소재들로 나타난다. 몸체부 조각은 투각기법과 양각을 혼용한다. 투각은 소통 내부에 대한 환기의 기능성을 염두에 둔 세심한 작업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몇 곳의 소통 몸체에 표현한 장엄소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범어사 소통: '옴마니밧메훔' 육자진언과 '옴람' 정법계진언, 卍자. △상주 북장사 소통: 구름 속에 용틀임하는 용, 선학, 동자와 파랑새. △수원 용주사 소통: '옴아훔' 삼신불 범자종자자('훔'자는 법신, '아'자는 보신, '옴'자는 화신에 대응한다.) △예천 용문사 소통: 붉은 보주를 다투는 쌍용문과 두 줄의 국화문. △여수 흥국사 소통: 넝쿨연화문. △영동 영국사: 다섯 송이 모란꽃. △영천 은해사 소통: 모란꽃과 새 네 마리. △곡성 도림사: 넝쿨과 꽃을 조각한 꽃살문 형식. △상주 남장사 소통: 연꽃, 매화, 국화문. △울산 석남사: 용과 연꽃. △동국대 박물관 소통: 모란꽃. 목조소통 몸체부의 조각에는 한 결 같이 투각과 선각으로 문양을 새기고, 그 위에 채색을 입혔다. 법당의 불단이나 꽃살문의 조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원문·경전·상소문 등 보관용 통
현전 소통 30여 점 조선 후기 제작
소통 90~135cm 몸체폭 20cm 안팎
조형의 아름다움 집중되는 곳 몸체

〈표〉 통도사 소통 3기 비교

소통 분류	(1)번 소통	(2)번 소통	(3)번 소통
높이	117cm	120.5cm	126cm
제작 시기	17C	17C	17C
재질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
기단부	난간 갖춘 2단의 전형양식	사자 세 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2단의 난간형	해태가 떠받치고 있는 연화좌형
몸체 모양	옴마니밧메훔 육자진언	용-모란-연꽃	봉황-모란-연지
뚜껑	사각형 뚜껑	뚜껑 없음	사각 보관형



양산 통도사 목조소통 3기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통


상주 남장사 소통(직지사 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상주 북장사 소통 세부(직지사 성보박물관 위탁보관)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 있던 목조소통

현존하는 소통은 대개 한 사찰에 한 기, 또는 많아야 두 기다. 통도사엔 무려 세 기가 현전한다. 세 기 모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있다. 한 기만 뚜껑이 없을 뿐 나머지 두 기는 완벽한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통도사의 세 소통은 저마다 고유하고, 저마다 조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목조소통의 아름다움 전모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각각은 한국산사가 간직한 목조소통의 전형과 이형, 파격의 형식미를 보여준다. 통도사 소통 3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사진의 왼쪽부터 1, 2, 3번 소통이라 부른다. 〈표〉 참조

세 목조소통이 가진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은 기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번 목조소통의 기단은 상층 난간을 갖춘 상하 2단의 보편형식이다. 상층 네 모서리에 연봉을 세우고 하엽(연잎)으로 연결한 돌난대를 돌려 난간을 시설했다. 특별한 점은 난간 내부 네 모서리에 3층 소탑을 조영해둔 사실이다. 어느 목조소통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엄으로 그 의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자 세 마리가 상층 기단을 떠받치고 있는 (2)번 목조소통은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 있던 것이다. 이미지가 구례 화엄사 4사자석탑이나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을 연상시킨다. 세 마리 사자는 쌍사자석등에서처럼 앞발을 들어 소통을 받친다. 그런데 사자의 얼굴엔 장난기가 넘친다.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 한 마리는 두 팔을 들어 용을 쓰는데 좌우 두 사자는 한 쪽 팔만 들어 잔꾀를 부리고 있다. 조형에 익살과 해학이 배어 있다. 기단 상층은 (1)번 목조소통의 상층기단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했다. 네 모서리에 연봉을 세우고 연잎으로 감싼 돌난대를 돌려 난간을 시설한 점이 동일하다. (3)번 소통은 전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의 본색을 보여준다. 기단부를 해태가 연화좌를 등에 진 파격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연화좌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 창녕 관룡사 범종각의 법고대(法鼓臺) 이미지와 겹쳐진다. 해태는 꼬리를 몸 앞으로 감은 채 바닥에 몸을 완전 눕혔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무서움과는 거리가 멀다.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있는 작은 체구가 오히려 가엾고 애틋하다. 조형양식의 변화과정으로 볼 때 (1)번 소통이 목조소통의 전형양식을 보여준다면 (2)번 소통은 이형형식에 해당하고, 해태상을 이용한 법고대 양식의 (3)번 소통은 전위적 파격형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통도사의 세 목조소통에 한국산사 목조소통의 A, B, C가 다 있다. 명작의 지위는 형상에 그림자 따르듯 당연한 몫일 것이다.

목조소통의 아름다움은 몸체 조형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1)번 소통의 몸체에 새긴 육자진언 조형구성은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하며 조각칼이 누빈 손길의 능수능란함이 오롯이 느껴진다. 넝쿨연화문의 넝쿨은 아래서부터 위로 S자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면서 여섯 송이 붉은 연꽃을 꽃피웠다. 장인은 그 꽃에 육자진언을 새기고 황금색을 입혔다. 그럼으로써 자비와 진리가 충만한 또 하나의 집을 완성했다. 다른 두 소통의 몸체에는 꽃과 물고기, 나비 등 뭇 생명의 세계를 펼쳤다. 활짝 핀 모란꽃에 나비가 펄펄 날고, 여름날의 연지엔 물고기와 게, 조개, 어변성룡이 생명의 공존으로 화엄을 이뤘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 그처럼 뜻대로 될 것이다. 목조소통은 간절한 발원의 마음이 결집한 곳이다. 목조소통에 자비와 진리, 발원의 마음이 활짝 꽃피웠다.

〈사진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불교인문학살롱

⓫ 선 · 악 不二와 無心–정의에 대한 생각

▶맹난자 수필가는 한국수필문학 진흥회 고문. 국제펜 자문위원. 前 〈에세이 문학〉 발행인 겸 주간, 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원장. 〈더 수필〉 선정위원장을 역임했다. 현대수필문학상, 남촌문학상. 신곡문학대상. 조경희문학대상. 현수필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등이 있다.



선악이란 이분법서 벗어나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가

"정의(正義)란 결코 단순하게 정의(定意)할 수 없다"고 미셸 푸코는 말했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도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답은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 책의 원제도 〈정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Justice:What' s the Right Thing to do?)〉이다. 그는 정의에 대한 상반된 여러 상황을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숙고하게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할 때, 가격이 덜 비싼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해 온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는 아이를 얻은 부모는 행복해하고 대리모는 받은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며 안락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2020년 그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써내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한 돌풍을 일으켰다. 푸코의 말대로 정의란 '임의적' 이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며 아전인수로 자기네들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맞선 사람들 또한 자기네 의견이 정의라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

실재하지도 않은 이념의 도그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사화(士禍), 자신은 물론이요 심지어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러나 임금이 바뀌면 불의한 자는 다시 정의한 자가 되어 정계에 복귀하고 실권자(失權者)들은 불의한 자가 되어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는다.

옳고 그름, 시비(是非)의 속내에는 사적(私的) 이익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심은 善에 속는다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 '인간은 인간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이상' 이 인간의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선험형식' 을 내세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오온으로 설명한다. 몸과 마음과정인 수상행식(受想行識)의 관계로 인식론을 통찰하자면 사물→눈→인상→표상작용, 여기까지를 칸트는 순수이성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상想' 의 복합관념이 붙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상想' 이란 마음이 모양〔相〕을 만들어낸 복합관념이다. 눈→인상→표상은 보는 그대로가 왜곡현상 없이 '나' 이다. 자아관념의 필터로 굴절시킨 망상妄想에 물들지 않은 그 '선험先驗' 을 칸트는 순수이성이라고 하였다. 선험형식은 누구에게나 있고 인간은 경험 이전에 대상을 인지하는 틀을 선험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고,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다뤘다. 칸트는 실천이성의 본질을 자유로 보고 실천이성의 형식을 도덕으로 보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내 머리 위의 별빛 찬란한 하늘과 내 마음 속의 도덕률이 있다"고 외쳤다. 그는 '도덕률' 을 실천이성의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도덕 근본주의자로서 그의 자유가 도덕 원칙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양심을 얼마나 들여다 봐야했을까?

칸트는 자신이 말한 양심이란 선험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양심을 양심이라고 하면 이미 바른 양심이 아닌 것이 된다. 자신은 이성적이고도 양심적으로 절대 선(善)을 지

칸트, "양심은 선험적이고 보편적" 주장
에고 발동하면 양심이란 선도 독선 변화
육조 혜능 선사 설했던 '불사악 불사선'
본래면목 자각하면 선악 초월해 자유롭다



육조 혜능 선사 진영.

향한다고 말하지만 에고가 발동하는 순간 그것은 '독선(獨善)' 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주의는 자칫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만다. 양심은 무엇보다 에고에 물들기 때문이다. 칸트는 '양심' 을 선험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오염되는 3차원의 세계였다.

모든 善은 惡을 회임하고 있다

심성론(心性論)에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사람의 성품이 본디 착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고 맹자는 '사단설(四端說)' 에서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의(義)의 단초라고 보았다. 의(義)가 격퇴해야 할 대상은 그러니까 악(惡)이다.

유가(儒家)의 선악관은 선(善)을 선택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택선이고집(擇善而固執)' 이다. 그러나 도가의 노자는 인(仁)을 잃은 뒤에 의(義)가 있고, 의를 잃은 뒤에 예(禮)가 있는 것이라며 "도는 늘 함이 없되, 하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 〈도덕경〉 제37장)"고 무위(無爲)를 주창했다. 도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가 예(禮)라며 상덕(上德)은 도의 근원에 가까우니 무위(無爲)로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위의 정치는 손 · 익(損益), 선 · 악의 대결에서 벗어나 마음이 허공처럼 자연과 회통하게 되면 세상은 자연처럼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언급했다. 노자는 악을 선의 적이나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악은 선善의 바깥에 서 있는 이물질이 아니라 선善이 분비한 또 다른 모습이므로(善惡不二)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마음을 무아(無我)로 바꾸라고 충고한다. 모든 선(善)은 악을 회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엄격한 자기 검열을 통해 회심(回心)한 성(聖) 아우구스티누스를 떠올릴 수 있다. 그는 '칭찬에 대한 유혹이 왜 죄인가' 를 성찰하면서 "칭찬의 유혹을 거부할 때조차 그 또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거부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행(善行)조차도 자칫 위선이 될 수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선행 속에 감춰진 자기 위선을 그는 〈고백록〉에서 냉엄하게 이렇게 마주한다.

不思善 不思惡하라

양심은 더러움(에고)에 물들기에 경험의 차원에 속한다. 선험(先驗)은 악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자리이다. 중국의 선사 6조 혜능이 어느 날 남악회양에게 그것을 물었다.

"가히 닦아서(마음) 증득할 수 있는 것인가?"

"닦아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물들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는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애써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나 또한 그러하다."

그 자리에서 남악은 혜능의 인가를 받아 그의 법을 이었다.

선험은 항상 있으면서(如如)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험이 작용(用)이라면 선험은 본체(體)라고 할 수 있다. 선험(體)은 온갖 경험(用)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하나는 마음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는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조(馬祖)대사의 가르침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 일부러 닦아 깨끗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대의 심성(心性), 그것은 본래부터 부처였으므로 다른 데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마조대사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卽心卽佛)' 라고 설파하였다. 본래성불을 깨닫고 나면 옳고 그름의 시비도 사라진다. 내가 진리라고 혹은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은 업습(業習)에 따라, 즉 인연에 반응한 자아관념의 굴절인 것이다. 그때 떠오른 것이 혜능 선사의 '불사선 불사악(不思善 不思惡)' 이었다.

6조 혜능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장사를 하던 중, 어느 객승의 독송을 듣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대목에 이르러 홀연히 마음이 열리며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가 황매산 5조 홍인의 법을 전수받아 의발을 가지고 떠날 때였다. 홍인은 "신표로서 전한 의발은 네 대에 그치고 더 전하지 말라. 유형의 물건 때문에 법난쟁탈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말하며 그를 이 밤으로 대중의 눈을 피해 남쪽으로 떠나가게 했다.

이튿날 이 사실을 안 대중들은 그를 추적하는데 선봉에 선 혜명 상좌가 대유령에 이르렀다. 6조는 혜명이 오는 것을 보고 의발(가사와 발우)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의발은 달마대사 이래의 신표이니 어찌 힘으로 대결할 것인가? 그대가 힘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 소원대로 가져가라." 그러나 웬일인지 의발은 바위와 함께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점차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잘못을 깨달은 그는 무릎을 꿇었다. "행자님, 소승은 의발을 탐내어 쫓아온 것은 아니며 오직 불법을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원컨대 이 몸을 가엽게 생각하고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혜능은 이때 말한다. "불사선 불사악(不思善 不思惡)하라. 선(善)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때에 그대의 진면목眞面目은 무엇인가"하고 그에게 되물었다. 혜명은 언하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다시 물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밀어밀의(密語密意) 외에 또 다른 의지(意旨)가 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설한 것은 결코 밀의가 아니요, 밀의는 그대 스스로의 면목을 마음으로 밝혀보는(反照) 바로 그곳에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밀의(密意)-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갖추어져 있는 본래 면목인 '마음' . 물들지 않은 그 마음(先驗)을 아는 데에 있지 않을까?.

선 · 악을 초월한 무심(無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마음의 저울눈금이 제로(0)인 상태. 오염 되지 않은 본래의 마음을 자각하면 그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불사선 불사악,'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신 해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인관리위원장

회주 무 공

사부대중일동

신해사 말사

진주금천암 주지 도 연

남해반야용선 주지 동 운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2821-46번길

전화 055)855-1772 팩스 055)855-0247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년고찰 밀양중심사찰 호국불교성지

무舞 봉鳳 사寺

주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영남루1길16-11 전화 055)354-3296

覺, 잠 깬 이가 꿈 얘기하는 것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㉑ 연야달다 이야기

〈원문〉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실라성(室羅城)에 살던 연야달다(演若達多)가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나타난 제 얼굴의 눈과 눈썹을 좋아하다가 홀연히 자신의 머리에는 얼굴과 눈이 안 보인다 하여 도깨비가 되었다고 화를 내며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부루나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묘각(妙覺)이 뚜렷이 밝아 본래 그대로 밝고 미묘하거늘 이미 망(妄)이라 일컬은들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妄)이라 하겠는가? 스스로의 모든 망상이 굴러져 서로 원인이 되고, 미(迷)로부터 미(迷)를 쌓아 진겁(塵劫)을 지났으므로 비록 부처님이 펴 밝혀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미(迷)한 원인은 미(迷)를 인하여 저절로 있는 것이니, 미(迷)가 원인이 없음을 알면 망(妄)이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오히려 생긴 바도 없거늘, 무엇을 멸하려 하겠는가? 보리를 얻은 자는 잠을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비록 정밀하게 밝지만 무슨 인연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강설〉이 이야기는 중생의 미혹(迷惑)이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라는 비유로 설해진 이야기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광기(狂氣)가 발동하여 미쳐서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에서 사람이 미친 증세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면 결국 생각을 잘못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는 미(迷)를 불각(不覺)이라 한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지만 전(轉)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뜻도 된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해졌다는 말이다.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불각심이 일어났다(不如實知眞如法一故 不覺心起)." 불각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기신론의 이 말은 진여를 모르는 상태의 마음이 되어버린 중생의 미(迷)를 두고 한 말이다. 왜 진여를 모르게 되었는가? 그냥 '홀연히'라는 것이다. 홀연히 진여가 흔들린 것이 불각의 시초라는 것이다. 마치 바다나 호수의 수면에 바람이 부딪쳐 파도가 일어난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을 각(覺)과 불각(不覺)이 화합된 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진여의 본각(本覺)과 무명의 불각이 합쳐진 것으로,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진(眞)과 망(妄)을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라 하여 아뢰야식을 설명할 때는 비일비이(非一非異)라는 말을 써왔다. 고요하던 물이 움직여 파도가 된 것은 진여가 아뢰야식이 된 것이다. 물이 파도이고 파도가 물이므로 물과 파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고요한 상태로 보면 동정이 다르므로 하나가 아니다.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변하게 된 데에는 진여를 모르는 미(迷)가 홀연히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규봉 종밀(圭峰宗密 · 780~841)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염기(念起)라고 표현하였다. 이 염기(念起)가 바로 무명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念起), 이것이 바로 '홀연히'이다. 연야달다가 미쳐 달아난 광기가 까닭 없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여 중생의 본각이 미(迷)해져서 자각이 되지 않는 것을 묘하게 비유하고 있다.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각진심(本覺眞心)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심진여(心眞如)다. 경험 이전의 선험적(先驗的)인 각(覺)인데 수행을 통하여 경험화(經驗化)시키는 것을 시각(始覺)이라 한다. 그러나 각(覺)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시본불이(始本不二)라고 한다. 완전한 깨달음인 구경각(究竟覺)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는 과정을 두고 범부각(凡夫覺),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이라는 명칭도 있다. 보리를 얻은 사람은 자면서 꿈을 꾸다 잠이 깨어 꿈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자주 하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살갗수행 호흡 자체가 '세수법'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㉑ 살갗호흡 통한 세수법

눈, 귀, 코, 입, 얼굴, 두정부 피질의 네 모서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두부 체감각계가 교정된 것이다. 연수부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다음 단계 호흡으로 수련을 심화시킨다. 백회에서 끌어들인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이끌어간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연수까지 내려왔던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간다. 경수부와 흉수부를 지날 때 느낌이 살아있는지 관찰하고 요수부와 천수부를 지날 때도 느낌의 상태를 관찰한다. 나선의 감각이 꼬리뼈 쪽으로 내려갈 때는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이 척수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이 느낌이 더 커진다. 억제된 느낌이 명확해지면 날숨 수련을 한다. 날숨 수련은 네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경수부 날숨이다. 경수부의 목신경은 8개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3번 분절부터 팔 신경과 연결된다. 8번 경수까지 숨을 들이쉬고 경수부를 억제시킨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 팔 쪽으로 호흡의 느낌을 유도한다. 목 어깨를 거쳐서 손가락 끝까지 느낌이 전달되면 제대로 된 것이다. 양쪽 팔로 내려가는 느낌이 균등하면 목신경과 팔 신경이 교정된 것이다. 처음에는 저르르 하는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다가 수련이 깊어지면 뻑뻑하고 뜨거운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가서 손바닥에 모여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경을 씻어내는 것을 '세수(洗修)'라고 한다. 살갗수행의 호흡법은 그 자체가 '세수법'이다. 목신경과 팔신경을 세수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펴 주어야 한다. 경수부 세수가 끝났으면 흉수부를 씻어 준다. 호흡을 요수 2번까지 들이쉰다. 마찬가지로 나선 호흡이다. 흉수부는 12개의 가슴 신경과 2개의 요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수 2번은 배꼽 반대쪽에 위치한 척추 부위이다. 명문혈이라 부른다. 날숨에 갈비뼈를 타고 호흡의 느낌을 배 쪽으로 끌고 온다. 뻑뻑한 느낌이 배 쪽을 감싸면 제대로 되는 것이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흉부와 배부가 두툼한 에너지로 감싸진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흉수부 세수가 성취된 것이다. 흉수부 세수가 진행되면서는 다리 쪽으로도 자극이 내려간다. 이는 요수 1, 2번이 씻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단계는 요수부 세수이다. 요수부는 5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 2번은 흉수와 함께 연동된다. 5번 요수까지 나선 호흡을 들이쉰다. 신경이 억제되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때 양쪽 요수를 통해 호흡의 느낌을 양쪽 발로 내려 보낸다. 호흡의 느낌이 고관절을 지나갈 때 두두둥 하는 진동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엄청난 냉기가 발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요수부 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발 쪽을 감쌀 때까지 반복한다. 요수부가 세수되면 발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용천혈 부위에 압력이 형성된다. 에너지가 발 쪽에 모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다음은 천수부 세수이다.

천수부는 6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꼬리뼈 끝부분이 천수부 말단이다. 백회에서 들이쉰 나선 호흡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온다. 신경이 억제되면 숨을 내쉬면서 천수신경을 자극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부위를 느껴 본다. 꼬리뼈 끝이 시리고 아랫배 쪽에서 냉기가 느껴지고 싸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 어떤 경우는 오한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기도 한다. 그야말로 냉기의 폭탄을 맞은 듯 온몸이 아우성친다. 천수부에는 엄청난 냉기가 내장되어 있다.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사람은 이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㉑ 세상의 이론에 습관화되지 말라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세상에 펼쳐지는 현상들과 근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어둠과 밝음의 관계처럼 서로는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마주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아 새로운 원리를 만들고 나면, 어떤 큰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근원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일 뿐이다. 세상은 이러한 발견하고 발전된 혼란을 더 좋아하여 동조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파놓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자신이 발견해야 하는 새로운 것을 인위적으로 찾는다. 그 인위적인 발견이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으며, 자신이 해놓은 그 일을 누군가가 다시 발전시켜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발견하고 만들기를 바란다.

왜 인간은 발견하고 발전한 것의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도 인간의 DNA 속에 수많은 삶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미가 태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가 떠나듯이, 인간의 DNA도 생명체로서 살아온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도출하여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직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에서 나오는 정해진 무명의 결과일 뿐이란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개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일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불변의 사실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수밖에 없다.

"세간의 여러 언설이나 글은 모두 세간의 인연법을 모아 말한 것으로 교묘한 비유와 어구로 수식하여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들을 유인한다네. 하지만 이러한 말과 글은 일체법의 구경을 깨달아 스스로 통하는 진실한 경계에 들어서게 할 수 없네."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생명체보다도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생명체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고,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어진 임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니 그저 그 인연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양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을 치우침 없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물질이 주는 안락과 물질의 축적이 주는 우월감의 유혹에 빠져 풍요를 즐기면서 환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앞서가려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도 새롭고 특별한 것은 없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모방되고, 허상밖에 없다. 완전한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도 없고, 소유되었던 적도 없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라는 이름에 묶여 자신을 가두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부단한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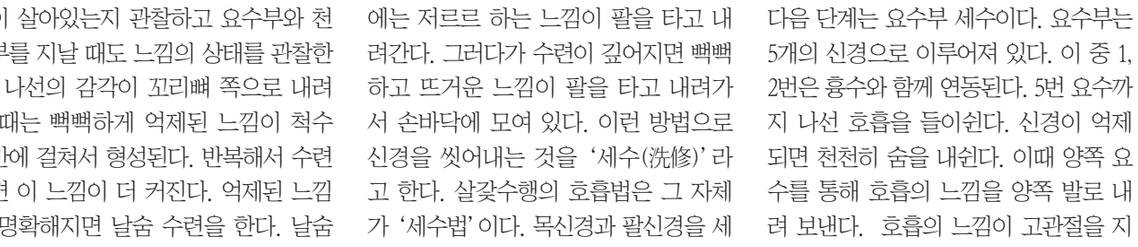
세상에 나타난 어떤 이론도 진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주체가 진리에 대한 앎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를 말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해야 한다. 그 부정이 나쁜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긍정을 할 수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을 해야 하는 그 개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되지만,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항상 옆에 있는 그 개체에 대해 더 이상 하여야 하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생기지도 않은 것에 대한 사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침묵 속에 놓일 것이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한 아무런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그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자신과 맞는 논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리는 또 다른 번민을 만드는 줄 알고 세상의 논리에 자신을 묶지 않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⑨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

▶ **한줄 요약**
대체로 나의 온갖 힘을 다 기울일 때면 거의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간다. 내게 온 일은 내가 지은 업에 따라오는 것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오는 것이다.

고난·시련, 피하기보단 맞서자



살아가는 중에 일이 꼬이고 유혹이 몰려오고 병이 들고 고난만 계속 몰려올때에는,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는 이 가르침의 뜻은 참으로 오묘한 힘을 갖고 있다.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 더 잘 볼 수가 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이것은 내가 아들에게 자주해주는 말인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면 바로 숨이 후우 나오고, 숨을 후우 하고 내쉬고 나서 앞을 바라보면 눈앞이 보다 넓게 보인다. 또 고개를 앞에서 뒤로 약간 젖히고만 보아도 가슴이 펴지고 조금은 더 넓게 볼 수 있어진다. 그것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본다는 뜻이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더 늘어난 상태이다. 마음의 상태가 조금 더 늘어났다면, 우선은 조급한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보는 시야는 물론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다. 앞과 뒤와 좌우로 옆도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커지는 여유가 생겼을테니까.

부처님의 말씀 중에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라는 말이 있다. 억울한 일이 꼬이면 정말 미치고 확 돌아버릴 것만 같다. 분해서 따져 보자거나, 같이 붙어서 싸워 보자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려고 들면 더욱더 꼬여들고, 그것을 이겨내자고 하면 할수록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른 일은 돌아보질 못한다.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고 따라서 집안은 엉망이 되고 몸은 병까지 난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나고 가슴속의 응어리는 풀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아예 바보가 되어버린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그 일을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고 몇 달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잘 참아온 나에게는 뜻밖의 상이 다른 것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험도 여러 번 겪어봤다. 고난이 올 때 그냥 바보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어쨌든 아주 좋은 약이다.

태국말로 '짜이 엔엔'이라는 말이 있다. 심장을 차갑게 하라, 마음을 식혀라, 냉정을 찾으라는 뜻이다. 우리 모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짜이 엔엔'을 자주 말해준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고 '짜이 엔엔' 하고 보면 놓고 비우는 길이 보이기도 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라는 뜻이 되겠다.

고난과 장애와 시련이 올 때는,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말고, 반드시 그것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풀어내고자 맞붙는 것이 제일의 방법이라고 본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 꼬이기만 하고 팔자가 사나워서, 팔자 도망을 하려고 모두가 다 잠이 든 이른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도망을 쳤다. 가다 보니 앞에 작은 강물이 있어 건너려는데 벌써 누군가가 철버덕 거리며 강을 건너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하는 사내가 "누구요?" 했더니 "나? 나는 네 팔자다"라고 대답하더란다. 이 이야기처럼 팔자가 먼저 알고 앞서니, 도망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온갖 힘을 다해 그놈과 직접 붙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나의 온갖 힘을 다 기울일 때면 거의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간다. 내게 온 일은 내가 지은 업에 따라오는 것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오는 것이다. 안 풀린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120퍼센트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아니면 80퍼센트의 노력만 기울였는가는 본인의 양심만이 아는 노릇이다. 나의 업에 따라 내게 온 것을 내가 심혈을 다 기울일 수 없을 때는 나의 다음 생으로 끌고 가게 된다. 자연히 거기엔 이자가 더 붙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벌떡 일어나 이생에서 다 끝내고 싶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있을 자리에 120퍼센트의 노력을 갖고 떡 버티고 있다면 모든 매듭은 저절로 풀리고 모든 문제는 스스로 사라지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조금 손해도 보고 조금 양보도 하고 조금 더 참아도 보노라면 다소 억울해도 그럭저럭 일이 풀려간다.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공부도 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볼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막히는 것이 없어진다. 막힌다는 것은 잠깐의 멈춤일 뿐이다. 잘 지나보낼 수 있으며, 이것은 더 크고 원활한 흐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된다. 인생살이의 시련 또한 마찬가지다. 그 시련을 넘어서면 더 큰 행복이 있음을 뜻함이다. 보통 우리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억울한 것만 보게 된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조바심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힘들때 한 걸음 물러서라는 가르침
마음 식히고 냉정 찾아 헤쳐가자
초보자는 점진적 수행으로 깨닫고
돈법·점법 차이는 근기에 의한다

불교의 지혜는, 그 지혜를 사회에다 실천해가는 방편이 불교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공성(空性)을 비롯한 불교의 진리에 입각해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자타의 구별 없음이 공덕을 베푸는 지혜를 가지게 하고 집착이나 애증 같은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게 한다.

철학은 단지 세계를 해석할 뿐이다. 부처님은 해석의 철학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초월한 실천의 형태를 찾아 나선 것이다. 지혜를 갖춘 자비이고, 자비를 갖춘 지혜이다. 이러한 지혜와 자비는 일심이고 유심이고 무생이다.

유심이고 일심이라 하나 그 마음은 특별하게 있는 곳이 없고 텅 빈 듯하고, 그러나 끝없는 공덕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이런 마음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각이 난 그 자리에서 실행하면 곧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지라 즉심즉불이라 하고, 그 자리에서 곧 일심 법계의 사사무애의 연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여여(如如)하다고 한다.

불교의 진심한 믿음도 곧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 이러한 교지를 뚜렷이 알아야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맹신이 아니고 먼저 올바로 알고 확신하여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행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과 이론이 일치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평등한 이사무애(理事無碍)가 이루어지고, 보살행으로 나아가 모두가 하나인 사사무애(事事無碍)가 성취된다. 불교의 믿음과 지혜와 자비는 모두 이사무애, 사사무애 두가지 이입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에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일체불법의 길을 요약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가 지니는 독자성은 믿음과 지혜와 자비가 모두 이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불교의 교의는 이론이 갖추어져 있고, 달마선의 핵심은 교에 의지하여 종(宗:심성)을 깨닫는 교선일체이다. 교의를 통해 이론과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 개시한 연구는 그대로 선리가 되고 선이 된다.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는 것이 능가선의 요약이다. 문(聞), 사(思), 수(修),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이 불교수행의 근본이니, 즉 먼저 알고 닦는다는 것이다.

5조 홍인대사는 입적 시 제자 현색에게 "너는 선과 교를 겸행하여 자신을 잘 보애(保愛)하라"고 했다.

깨달음에도 옅음과 깊음, 초보와 궁극의 차이가 있어 당연히 점오와 돈오라는 말이 쓰인다. 깨달아 닦아나가는 점수와 깨달음 그 자체에 머무는 돈오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지만 그렇다고 딱 둘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차례를 밟아서 점차로 해탈케 하는 가르침을 점교라 하고, 수행해서 점차로 얕은 데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점오라 한다. 이에 비해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곧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돈오라 한다. 돈오는 특히 혜능대사를 포함한 남종선(南宗禪)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돈오를 종지로 내세우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일반 보통신자들이나 초보 수행자들에게는 이해에 혼선을 갖게 하는 듯하다. 어디든 사람이 모인 한 그룹의 인원 팔십 내지 일백 명 중에 천재는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보통의 학문에서도 그러한데, 더욱이 정신교육이나 마음공부의 세계에서는 이 한 사람의 천재가 나타나는 것이 반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면 너무 먼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만큼 더 어렵고 더 드물다는 말이다. 이런 천재가 깨우친 방법을 놓고 전체를 평가하는 주장은 천재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설득이 잘 안 될 뿐더러 일반사람들이 따르기가 쉽지않다. 무슨 경쟁을 하듯이 둘로 갈라서 내가 더 똑똑하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도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비록 지금 반짝 깨우쳤다고 해도 그 사람도 많은 생을 거쳐 왔을 것이다. 부처님도 전생담(全生談)이 있는데, 반짝한 그 사람 역시 그런 과정에서 시절연이 맞아서 반짝 깨우쳐 준 것이라고 하면 이가 된다. 오히려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원칙대로 하나하나 차례를 밟아서 점차로 깨우쳐 감이 더 단단할 것 같다.

다행히 종밀 규봉 스님이 "만약 멀리 후세의 일까지 생각해 본다면, 오직 점(漸)만 있고 돈(頓)은 없다. 지금 돈견(頓見)하는 자도 이미 다 생의 점훈(漸訓)이 있어 발현한 것이다"라고 해준 말이 있어서 마음 놓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마음 공부에 접어들 수 있게 해준다.

법체는 연설을 떠나 있고 차별이 없기에 돈법과 점법의 상을 따로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돈법과 점법의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의 근기 차별에 의한 것이고, 단지 그것일 뿐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8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러 다닌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무희망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하여 악보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 대금 · 작법무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2길 32-81, 영원사

010-3156-221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자들이 기도 이끌어 주시고 정진하며 사실 스님 모십니다.

(시내 선원이라
조석 예불은 없습니다.)

010-2811-0118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8호 | 16 | 전면광고

비록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10억
- 위치 : 강원 동해 암자 • 부지 : 110평
- 건평 : 30평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2억 2천 5백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 전세가능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전세 : 1억 5천만원, 매매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건물, 토지 지주 승락시 지번공가능, 상담 후
- 위치 : 경기권, 경북권, 충북권, 충남권, 강원권
- 소 · 대형 사찰 인수하실 분 단체나 법인, 개인 매수인 직접시 직거래 가능
- 소형 2,000만원부터 100억대 사찰 또는 소형 /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의 오지 터 〈직거래 가능〉
- 공시지가 이하 소형임야 또는 대형임야 사찰 부지 1. 계약금 걸고 대형사찰 잔금 대출금으로 양도 가능

(도암)010-3184-536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농막·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 평수 : 1898㎡당. (574)평
- 용도 : 토굴, 주말농장
- 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곳, 도로, 골짜기, 전기접
- 가액 : 2,600만원

010-5454-7662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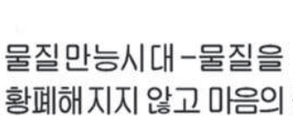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파주 금당사 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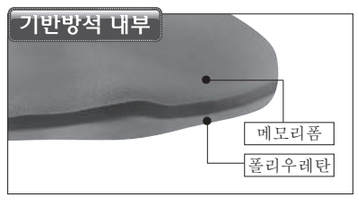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세상만사가 다 한 가지, 마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명선원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강당은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건립한 것입니다. 모든 실생활 속에서 인연에 따라 주어지는 대로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모두 계발이 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정신계의 창조력을 기르면서 창조를 해냅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다 창조인 것이고 계발인 것이고 바로 발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실 때에도 바로 실천과 궁행을 위해서, 진실한 오늘을 위해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신 겁니다. 물과 흙과 불과 바람의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형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도 생명이고 흙도 생명이고 바람도 생명이지만 그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져서 온기가 생기고, 온기가 생김으로써 바로 불과 바람, 흙, 물이 한데 합쳐져서 생명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는 모두 암흑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흑 속에서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져 온기가 생기니까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혼자서는 창조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연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내면 좋은 창조력을 이루고, 만약에 나쁜 악성으로 인연을 지어서 나간다면 악행이 돼서 돌아옵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업보가 오는 것이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인연을 지어서 행하고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시주를 해서 건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신계의, 내면세계의,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덕이 될 것이고 '내가 시주를 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었다. 내가 얼마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두가, 각 혹성들이 한데 합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지고 합치고 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가 스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바로 만 개가 되고 만 개가 십만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혹성이라는 게 벌어졌고, 별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마음의 불씨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씨란 영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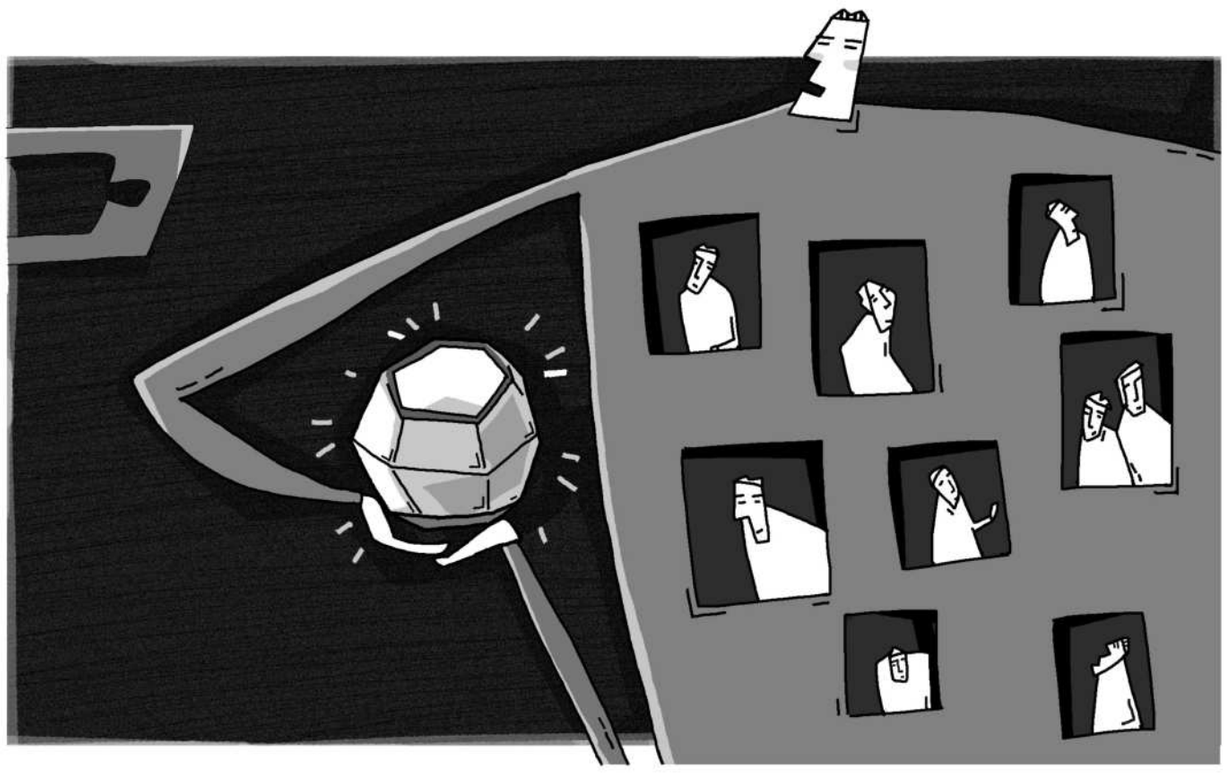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자리를 함으로써 그 모든 마음의 인연들에 의해 보람 있는 작업의 결과로 강당이 저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식구가, 이 식구에게 가도 하나요 저 식구에게 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 식구가 사는데 이 식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식구에게 하나로 몰아 주고 저 식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 식구에게 하나로 몰아 주고, 어린애가 그러면 어린애로 하나로 몰아 주어서 이리로 가도 하나고 저리로 가도 하나로 돌아가게끔 하십시오. 한마음의 인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마음을 내면 바로 불을 켜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불을 켜게 되면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한 방이 다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도리를 취하십시오.

이 정신계의 발전이란 내 마음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 떠나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이 있고 부처가 있고 종교가 있고 모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작용을 다 할 수가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모두 각자 오신통이 다 갖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면세계를 등한시하고 물질계 50%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걸리는 게 수도 없지만,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작용을 한다면 얼마나 걸림이 없이 평온하고 여여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오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과거의 일을 아는 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 거, 그것을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단 둘이만 앉았는데 뇌물을 주니까 안 받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것 좀 받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느냐?" 하더랍니다. 하하하.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을 하고, 남 보이지 않는 데 숨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남이 보지 않았으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또 어디로 퍼지느냐? 이 우주간 한마음의 법계에서 전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모두 인연 줄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지키라고 계 정 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장난인데 마음의 장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으며 훌쩍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마음은 어디까지나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나서 누진으로 통신이 돼야 누진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바깥의 대기권에도 모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들이고 내는 레이더망, 즉 말하자면 두뇌의 바른쪽 왼쪽에 작용을 하면서 그 핵심이 거기에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 모두를 작용을 하게끔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심성 의학도 되고 심성 과학도 되고 심성 철학도 되고 심성 천문학도 되고…, 세상만사가 다 한 가지, 마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더하고 덜함도 없고 흘러간다 흘러온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대로 흩어질지언정 그 마음의 핵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맷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잘 들으세요. 맷돌의 아래 위에 심봉을 끼워서 돌린다면 그 맷돌의 심봉은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힘만 가하게 됩니다, 힘! 맷돌이 돌아가게끔 힘만 주는 것입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대로 팥을 넣으면 팥이 갈려 나오고,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라도 넣으면 갈려 나옵니다. 자기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만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봉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심봉에 의해서 어떻게 갈아 내느냐, 무엇을 갈아 내느냐,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무엇을 갈아 내느냐, 나쁜 일을 갈아 내느냐 좋은 일을 갈아 내느냐, 선덕을 쌓느냐 악업을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심봉은 어떤 걸 갈아 내든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대로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힘만 가해 주는 것입니다.

☞ 18면으로 계속



자기가 한마디 한 게 보증수표가 돼야 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그러니 내 몸뚱이 속의 업식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라는 놈이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멋대로 몸뚱이가 움죽거리게 놔두는 것은 바로 고삐 풀린 망아지나 소가 콩밭이든 파밭이든 들어가서 막 그냥 짓밟고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은 삼갈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 나가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게끔 해 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부처님이 어떠니저떠니 하지 마십시오. 하하하. 부처님은 힘만 가하는 거지 요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사방이 다 터지고 지붕도 없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찰나에 오고 가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행자만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인간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개미라도 계율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계율이 있구요. 그렇듯이 바로 자기 마음의 계율을 지킨다면 남이 준 계율보다도 아마 한 치도 에누리 없이 계율을 지킬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도의나 의리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마디 해 놓은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신용을 잃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한마디 한 게 보증 수표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하고 덜함도 없고 에누리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지은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가 많습니까?" 합니다. 현재 고가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외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참외 싹이 납니다. 그렇듯이 세상만사가 다 끼리끼리 놀여져 있습니다.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모여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모이고요.

정신계 50%에 좀 더 가려 하는 그런 의식과 더불어 신념이 뚜렷한 분들은 정신계의 모든 정신과학을, 생활을 습득하기 위함이요 깨닫기 위함이요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 가 봐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놨습디다.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 있어요. 사람들도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모였습디다. 이거 두 마디만 해도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천차만별로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되는데 벽을 아무리 쳐도 봇장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이지 '야 참, 사람 사람이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마음이 좀 트여야 될 텐데 아주 캄캄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면 저 귀를 띄어 주고 눈을 띄어 주고 마음을 트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말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지만 듣는 분들이 잘 건져 들으십시오.

되풀이합니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력도 물이 아니면 안 되죠?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정신계의 핵심적인 문제를,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그 핵심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쓸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 쓰고 태양열을 끌어 쓰듯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작용을 해서 자기가 생활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량이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없는 줄 알고 그러지만 이 허공에 생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오늘 사는 것에만 온갖 힘을 다해서 그냥 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빨리 놓고 돌아가야만이 피가 돌듯이 돌아갈 텐데 온통 붙들고 늘어지니 그게 돌아가나요? 마음이 그렇다면 몸 자체도 그렇게 병이 드는 수가 많습니다. 정맥 동맥이 재빨리 돌아가야 세포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걸림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한쪽을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하하. 몸뚱이가 망가지듯 생활도 망가지고 바로 사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열 가지 백 가지 만 가지가 다 하나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로 가라앉고 합니다.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하듯이 밀물 썰물도 둘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명들도 파도가 쳐야만이 물 밑까지 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도에 의해 태양열이 같이 돌아가니까요. 태양이 물속까지 비춰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물이 혼합이 돼야만이 모든 생명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놈의 물이 파도가 치고 이렇게 극성을 떨어?" 이러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생각도 할 줄 알아야지 내 생각만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좀 지혜가 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더라도 남이 아파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마음씨가 갸륵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말 안 하는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고 슬피 울지 않는 게 없고 웃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꽃나무가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서 가지가 반이 뚝 잘라지다시피 해서 껍데기도 얼마 안 붙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물이 흐르는데, 눈으로 볼 때는 진물이지만 그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을 손으로 뜯어서 새끼를 꽈 가지고 그거를 한데 합쳐 가지고 매 줬죠. 매 주고서 돌아서는데 너무 즐거운 거 있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마음도 즐겁고 그 마음이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몇 달 있다 거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진이 묻어서 그냥 한데 합쳐져서 아주 끄떡없이 붙어 버렸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말을 못 한다고 모두가 우습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새 한 마리든 무엇이든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 생명을 위한다면 남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어떤 스님이 날이 저물어서 어느 오두막집에 들어갔더니 소머리를 고아서 한 쟁반을 해 왔더랍니다. 스님더러 잡수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두말없이 잡숴 버렸더랍니다. 스님이 두말없이 잡숴 놓고 하는 말입니다. "어허, 이거 소의 무명이 다 벗겨지고 한 찰나에 내가 돼 버렸구나." 이러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해 보십시오. 차에 실려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나 개와 같은 불쌍한 짐승들을 보았을 때 끌려가는 대로, 스무 마리든 백 마리든 모두 자기에게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게 안락사가 돼서 무명을 벗습니다. 무명을 벗은 뒤에 사람 속으로 들어갔으니 사람의 마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짝짓는 데 또 넣어 준다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소도 수효대로 내주는 게 아니라 만 마리를 한 명으로 만들 수가 있고, 천 마리를 한 명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한 마리를 만 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이 도리를 아시는 분에 한해서는 어떠한 거든지 살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개미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모아 가지고 내다 놓으면서 "야, 사람들 사는 데 들어오면 네 몸뚱이가 자꾸 죽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너희들 노는 데서 놀아."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요런가 하면, 만약에 개미들을 몽땅 집어 먹었다고 봅시다. 하하하. 집어 먹었다면 개미들은 정말 개미라는 무명을 벗고, 고생을 하더라도 인간이 돼서 아마 인간의 도리로서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어떠냐는 겁니다.

인간의 몸뚱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몸뚱이가 한 철 나러 나온 겁니다, 한 철! 그 한 철 날 동안에 이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절에서 천도를 잘 시킨다는 얘기도 합디다마는, 아무렇게나 염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친다고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형상의 부처님과 형상인 자기가 둘이 아닌 줄 아는 스님이라야 목탁을 한 번만 쳐도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부처 따로 있고 스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런다면 목탁을 천만 번을 쳐도 천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도가 왜 생겼느냐.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식이 항상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 집을 맴돌거나 자기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고 나서 잔뜩 들어 있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니까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업식 소굴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뚱이 속에 업식, 의식, 모습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모습들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돼 있나. 한번 보지 않고 들여다보세요. 그 모습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작용을 해 가지고 파워를 일으키고 해서 자기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듯이 온통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강을 건너갈래야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바퀴를 넘어설래야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러니까 오백 년이 돼도 천 년이 돼도 물가에서 뱅뱅 돌면서 한 치도 건너갈 수 없죠. 이러니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병이나 낫겠다고, 또는 자기가 잘되려고 천도재를 한다면 아니 됩니다. 묵은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 드린다면 자손들은 더불어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염주 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만 생각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급하게 생각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겁니다. (중략)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의 도리를 열심히 이루셔서 내 몸, 집, 이 시자를 튼튼하게 해서 끌고 다니시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내 마음 주인공에다 불을 켜도 내 자식들한테 불이 들어온다. 나한테다 불을 켜도 내 남편한테도 들어오고 내 부인한테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잊어서도 아니 되십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보지 마시고, 둘로 보지 마시고 이 마음의 도리를 하루바삐 깨치셔서…,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편안하고, 아주 악한 것이 없어지고 선한 도리만 짓게 되고, 착한 일만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만 하게 되고 부드러운 행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홀연히 밝게 참자기의 소식을 맛볼 것입니다.

그렇게 맛을 보신다면 그저 한생각이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자식의 뿌리를 도와줄 수 있고,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햇빛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한 분들은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 조사들하고도 둘이 아니요, 일체 스님들하고도 둘이 아니요, 일체 모든 버러지라도 둘이 아닙니다. 그 도리를 아신다면 자유인으로서 여여할 것입니다.

> 한마음의 인등이라는 것은
> 내 마음에서 마음을 내면 바로 불을 켜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 불을 켜게 되면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 한 방이 다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도리를 취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5월 3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사고로 24시간 대수술에
뇌경색 겹쳐 절망

감각 · 언어 장애에도 병원비 감당 못해 재활치료조차 못 받아
목숨 걸고 탈북 했으나 15개월 아들과 가족 생계마저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현불논단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뜻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올해 연등회, 일상회복 알리는 축제
시민 · 외국 관광객, 환희의 박수 보내
부처님 탄생게, 중생 제도 서원 담겨
고해 벗어날 지혜를 우리에게 설하셔

마음 아름다우면 세상이 부처님 세상
어두운 사람에게는 깜깜한 지옥이다
"고통 벗어나는 게 즐거운 삶" 상기를
부처님오신날 지혜 연등 밝히는 이유

지난 5월 20일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연등행렬이 4년 만에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돼 장엄하고 아름답게 봉행했다.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마스크 없는 일상회복이 이루어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쾌유와 승리를 선언하는 축제였다. 동대문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 조계사 앞까지 대규모 연등행렬을 맞이한 시민들은 기쁨과 환희의 박수를 보냈다.

더군다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2020년 12월 16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관심사였다.

만해 한용운은 부처님오신날을 '성탄'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찬양했다. "부처님 나심은 온 누리의 빛이요 뭇 삶의 목숨이라 이곳과 저 땅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에 삶과 죽음이 없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탄생게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인간이 가장 존엄하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쌓여있구나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라고 밝혔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첫째,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을 밝힌 것이다. 붓다는 '깨달은 분'이란 뜻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둘째,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이란 한계상황 속에 포위된 고해(苦海)임을 밝혀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중생에게 설해준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괴로움을 없애는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교리이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위대한 것이다. 사람이 하늘이고 부처인 것이다.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한 이 말씀을 선가에서는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는다. 똑같은 현상(세계)이라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느껴진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깜깜한 지옥이다. 내 마음이 부처이고, 내가 아는 세계가 나의 세상이다. 마음의 평화가 곧 부처님 세상이다.

욕심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들고, 고통스런 생각에서 벗어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즐거운 삶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지혜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오신날에 지혜의 연등을 밝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웃과 함께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물망처럼 살아가는 공업 공동체이다. 따라서 시대의 아픔과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간다. 독자적으로 홀로 살아 갈 수 없다.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상명령인 전법 교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법도생(傳法度生)이다.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무상하게 변화하니 부지런히 변화에 대처하여 열심히 살아가라고 설하였다. 우리는 전미개오(轉迷開悟)해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해야 하고, 불교종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혁신하여 세상을 향도해 나가야 한다.

부처님은 영원한 스승이고, 중생이 살아가는 나침판이고 모델이다.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여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자.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가? 중생이 부처이다. 내 부모형제가 나의 보살이고 부처이다. 모두가 상불경보살이다.

社 說

명상으로 이루는 '마음의 평화'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환희의 감로비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다. 올해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돕고,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힘쓴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를 언급하며 세계시민 모두와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런 평화의 정신이 국민 삶 속에 깃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K-명상'으로 대변되는 '선명상'을 강조했다. 명상을 통해 개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지혜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힘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도 명상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치인 평화. 물리적인 평화가 아닌 마음의 평화야말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차별이 없다고 설하신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실천하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일 때 1700년 한국불교의 얼이 열매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계속되고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루 10분, 짧은 시간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이뤄보자.

도난 성보 환지본처에 부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32점의 성보 환수는 2020년 1월경 경매사에 불화를 출품해 처분하려다 범행이 발각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은닉해 온 불상과 불화 등 총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찾아내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입수문화재 몰수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문화재 원 소장처 환부결정에 따라 조계종에 환부됐다.

이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2014년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에 따라 꾸준한 협력을 통해 도난 불교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성보의 환지본처는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성보의 신앙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특히 예경의 상징인 불교 성보들은 사찰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닌다.

앞으로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이 이뤄져야 도난 성보들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불자 대중에 주어진 숙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남국 노스님 말씀

남국의 남녘, 바닷길이 끝나고 대륙으로 건너가는 섬들의 길목에 서귀포 보목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귤꽃 향기 가득하면 그리운 임이 오시는 날이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한 30여 년 전에 이곳을 처음 찾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드문 남방의 돔 형태의 사찰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찰에 들어서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참배를 하고 나오니 자그마한 체구의 노스님이 나오셨다. 차담실로 안내를 받고 사찰을 짓게 된 유래를 들을 수 있었다.

"절 앞에 보이는 오름 이름을 아시는가. 제지기오름이라고 하지. 절지기에서 변형된 이름이야. 예로부터 '저즈기 오롬', '제지기 오롬', '제제기 오롬' 등으로 불러왔고, 한자 차용으로는 저즉악(貯卽嶽) · 저좌지악(貯左只嶽) · 저적악(儲積岳) · 사악(寺嶽) 등으로 표기하지. 그 오름의 남사면은 매우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는데, 중턱에 바위굴과 절터가 있어. 그 절을 지키는 절지기가 살았는데, 이로 인해 '절오름', '절지기오름'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제지기오름', '제제기오름'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는 그 오름을 '불래(佛來)오름'이라고 했어. 부처님이 처음 오셔서 머무신 오름이라는 뜻이지. 아마도 깨달음을 얻으신 고승이 처음 당도해서 그 굴에 머물며 탐라국을 살펴보고 수행하기 좋은 영실에 존자암을 창건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 후로 사람들은 이곳 보목동 불래오름을 절지기오름이라 하고 존자암 뒤편의 오름을 불래오름이라 하게 되었어.

어릴 적에 스님이었던 형님을 따라 영실에 가서 〈법화경〉 독송 기도를 많이 드렸어. 부처님께서 〈법화경〉이 설하신 곳이 영축산이잖아. 영실이 영축산의 여래향실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법화경〉을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듣는 마음으로 영실에서 비바람 겨우 가릴 수 있는 움막을 짓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여기서 쇠소깍을 지나 효돈천을 따라 올라가면 고려 시대 절터인 영천사지가 있고, 그곳 천의 한편에 '관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가 있어. 옛날에 섣달 그믐날 절에서 악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을 지켜보던 곳이야.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영천사의 스님이 새겼다는 기록이 있어. 때로는 영실 안쪽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때때로 그곳에는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섭기도 했지. 하지만 그때가 그립고 형님도 그리워. 참 간절했는데. 형님이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후에도 새마을운동 때 쫓겨 나가기 전까지 기도했어. 지금은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 부처님 도량의 출발지인 이곳에 법화도량을 만들었어. 형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곁에 가셨을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진하셨는데. 형님은 해방 후에 왜색불교를 혁신하여 참된 불교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셨어. 옆에서 심부름하며 지켜보면서 무척 존경스러웠지. 지금은 늙은이가 되어서 이 도량에서 윤회의 모든 고통 벗어나 형님 따라서 부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어떨 때는 마치 영실에서 형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국토로 가신 노장님을 생각하며 등불을 밝힌다. 지금은 그 도량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간절한 말씀은 가슴에 또렷하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